

목 차

I. 2024년 경제·금융환경 전망

1. 요약
2. 세계경제 동향
3. 국내경제 동향
4. 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II.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 요약
2. 성장성
3. 수익성과 건전성
4. 주요 이슈와 과제

부록. 보험 종목별 보험료 전망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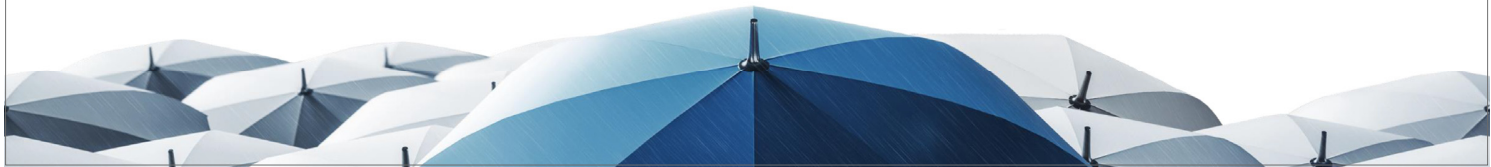
2024년 경제·금융환경 전망

금융시장분석실





I . 2024년 경제·금융환경 전망



1

요약

국내외 경제 변동성 축소

- 코로나19 충격 이후 확대된 국내외 경제 변동성은 재정정책 정상화 및 통화정책 긴축기조 강화 등에 따라 2023년 들어 축소
 - 2023년 국내외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는데, 이는 재정 및 통화정책에 더해 소비 리밸런싱에 의한 설비투자 위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
 - 국제유가 안정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국내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락
- 국내외 금융시장의 경우 실리콘밸리은행과 크레딧스위스 파산에도 불구하고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주요국 주가, 환율 및 시장금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 등에 따라 등락을 반복
- 2024년 국내외 경제 성장률은 2023년 수준을 유지하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소비 리밸런싱 마무리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다소 회복되나 가계 초과저축 고갈로 소비가 부진해질 것으로 예상
 -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유지,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나 최근 국제유가가 불안해지고 있어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1. 요약

국내외 경제 새로운 균형(New Normal Season 2) 수렴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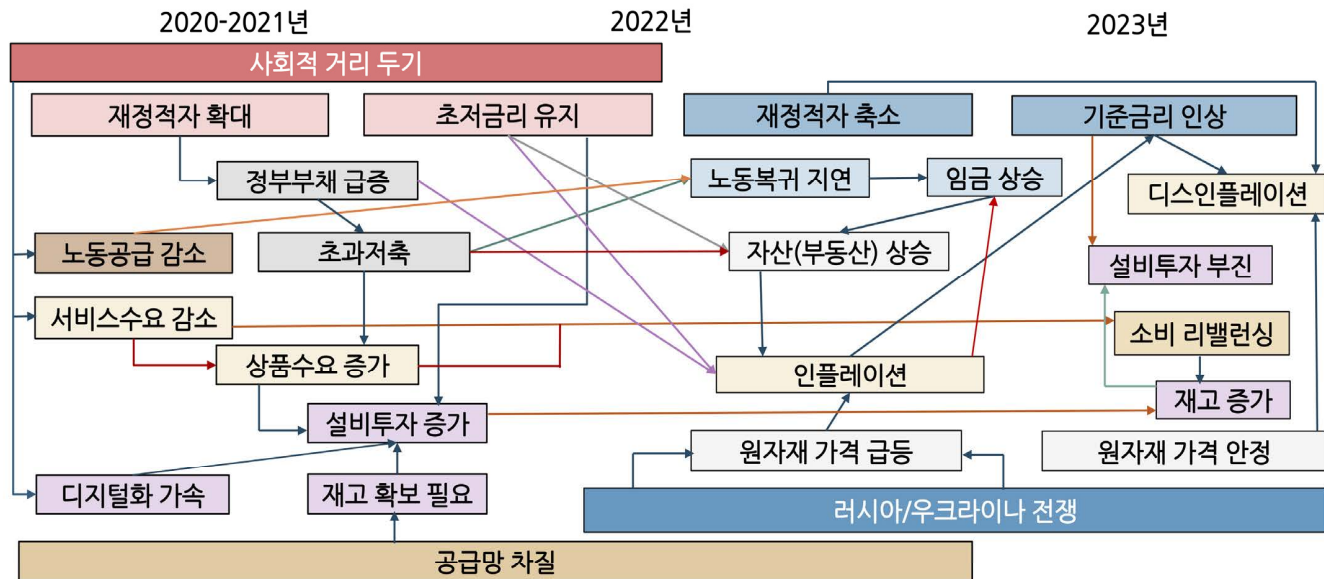
- 2024년 국내외 경제는 이전 균형(New Normal)보다 경제 성장률은 낮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시장금리는 높은 새로운 균형(New Normal Season 2)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한국) 성장률의 경우 2001~08년 평균 4.2%(4.9%), 2011~19년 평균 3.9%(2.9%), 2023~28년 평균(IMF 전망) 3.0%(2.2%)로 새로운 균형에서는 이전 균형을 하회
 - 세계(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2~08년 평균 4.3%(3.3%), 2011~19년 평균 3.5%(1.6%), 2023~28년 평균(IMF 전망) 4.4%(2.3%)로 새로운 균형에서는 이전 균형을 상회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시장금리는 이전 균형을 상회
- 국내외 경제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대외위험 요인으로서는 국제유가 상승, 기후변화 심화 등에 의한 물가불안 재연과 고금리 지속, 국가 간 갈등과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 가속, 중국경제 경착륙,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이 거론
- 대내위험 요인으로 가계 및 기업대출 부실과 부동산PF대출 부실 가능성 등을 주의할 필요

2

세계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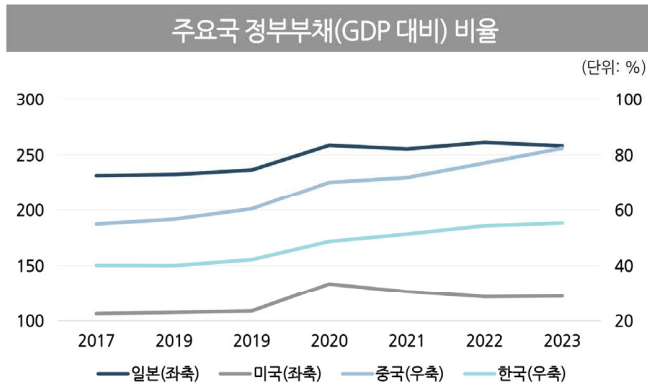
2. 세계경제 동향

충격이전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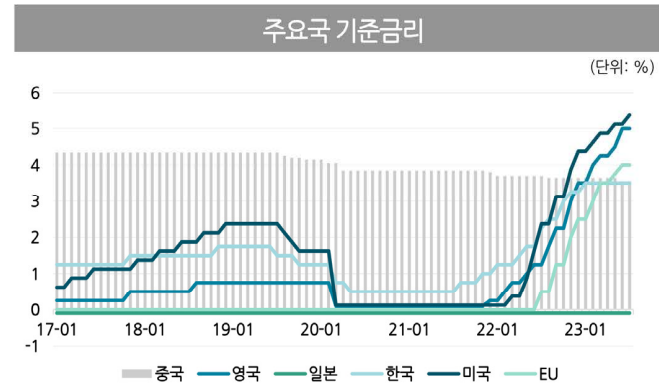


재정정책 정상화 및 통화정책 긴축 강화

- 코로나19 진정, 사회적 거리두기 철폐, 높은 인플레이션 발생 등에 따라 주요국은 재정정책 정상화 및 통화정책 긴축 강화
 - 반면 중국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으로 기준금리 인하 및 재정지출 확대 유지
 - 일본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아 제로금리 정책 지속(그러나 수익률 곡선 기울기 상승 유도)



주: 2023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2023. 4), World Economic Outlook



자료: BIS Statistics

2. 세계경제 동향

GDP 성장세 둔화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 재정정책 정상화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은 2023년 들어 GDP 성장세 둔화
 -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중국과 일본은 각각 리오프닝과 엔화 약세에 힘입어 GDP 성장세 개선
-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 및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
 - 중국은 소비 리밸런싱,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차대조표 조정 등으로 디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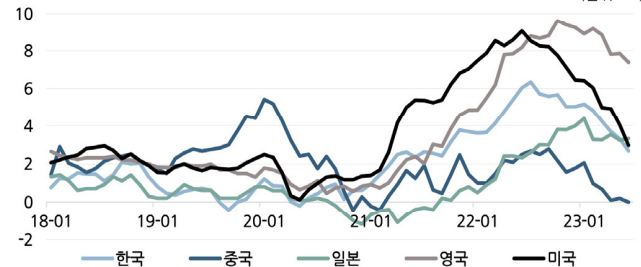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대비
한국	2.9	2.2	-0.7	4.1	2.6	1.5	7.6
중국	6.8	6.0	2.2	8.4	3.0	5.2	20.0
일본	0.6	-0.4	-4.3	2.1	1.1	1.4	0.2
영국	1.7	1.6	-11.0	7.6	4.0	0.4	0.0
미국	2.9	2.3	-2.8	5.9	2.1	1.8	7.0

주: 2023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2023. 4), World Economic Outlook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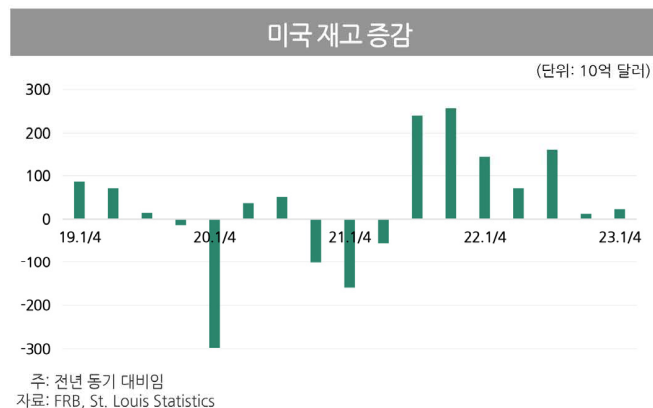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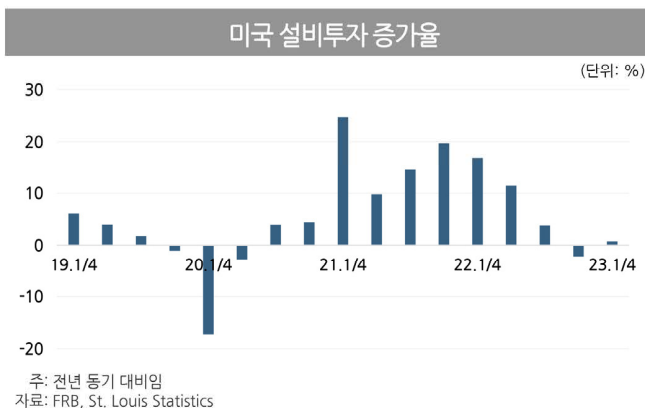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GDP 성장세 둔화는 설비투자 위축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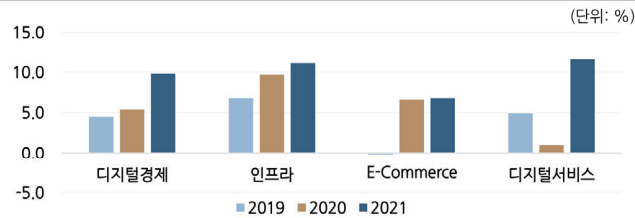
- 미국(예시)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설비투자가 증가하였으나 2023년 들어 위축
 - 코로나19 충격 직후 설비투자 증가 이유는 경제 디지털화 가속, 공급망 차질로 재고 확보 필요 증대,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상품 수요 확대 등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비용 증가,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고용비용 증가, 소비 리밸런싱에 의한 재고 증가 등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설비투자 위축



2. 세계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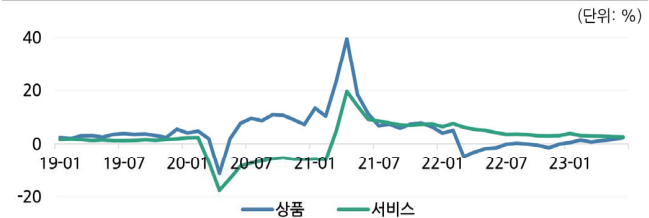
[참고] GDP 설비투자 증감 원인

미국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 증가율



자료: FRB, St. Louis Statistics

미국 상품 및 서비스 소비 리밸런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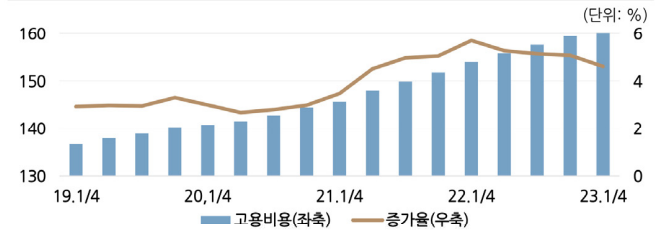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FRB, St. Louis Statistics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



주: 물량 기준, 2023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2023, 4),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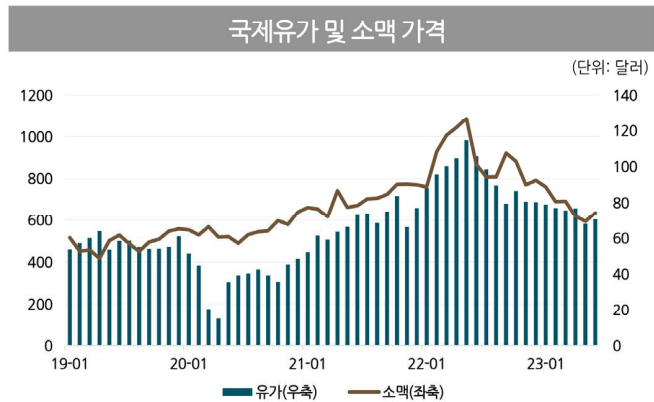
미국 고용비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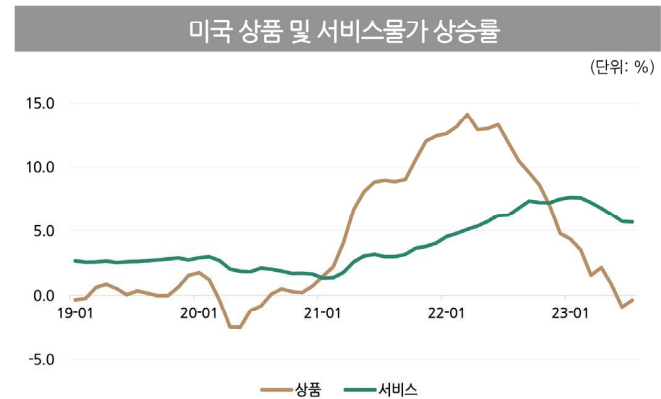
주: 2005=100,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FRB, St. Louis Statistics

디스인플레이션은 국제유가 안정이 가장 큰 원인

-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안정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디스인플레이션)에 기여
-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5%를 상회하고 끈적(Sticky)하여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주저



주: 국제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소맥은 부셸당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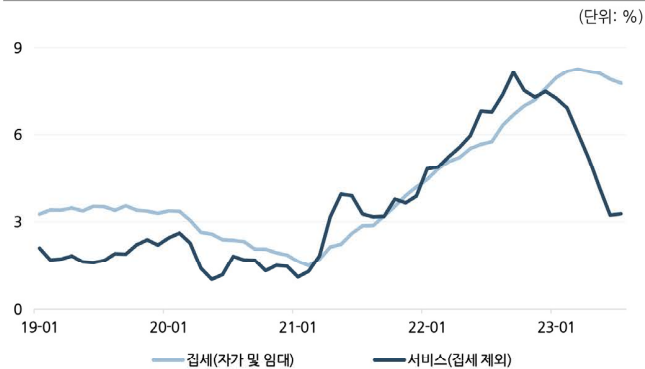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FRB, St. Louis Statistics

2. 세계경제 동향

[참고] 미국 서비스물가 상승률 끈적(Sticky) 원인

- 미국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이유는 주택공급 부진 기대, 재택근무 확대, 고정금리 대출, 초과저축 등에 의한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세 지속 때문
-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노동공급 부족에 따른 타이트한 노동시장 환경

미국 집세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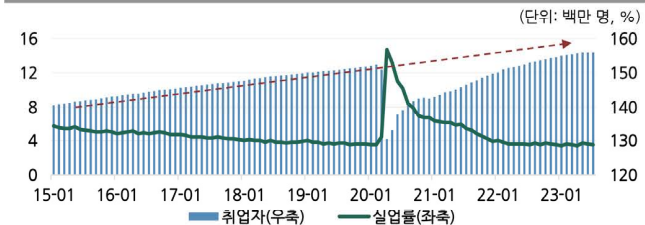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FRB, St. Louis Statistics

미국 주택가격 상승 원인

- | | |
|--------------|--------------|
| - 주택공급 부진 기대 | - 재택근무 확대 |
| - 고정금리 대출 | - 초과저축·임금 상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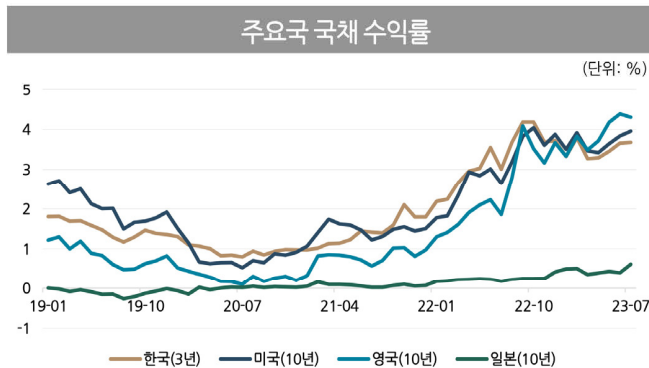
미국 취업자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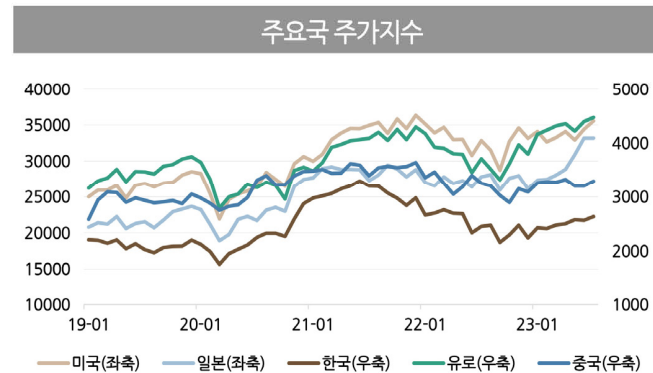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Statistics

SVB 및 CS 파산에도 금융시장 안정세

-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및 크레딧 스위스(CS) 부실(투자 손실)에도 해당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금융시장 안정세 회복
- 중국을 제외하고 주요국 주식시장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최근 국채 수익률은 국제유가 불안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기조 장기화 우려로 다시 상승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한국(KOSPI), 미국(DJ), 일본(NIKKEI), 유로(Euro STOXX), 중국(SHCOMP)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세계경제 동향

[참고] SVB 파산 원인

- 자산의 절반 이상이 유가증권이고 이 중 만기 10년을 초과하는 비중이 79%를 차지하여 금리 1%p 상승 시 100억 달러 이상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구조
 - 설비투자 침체로 대출 수요가 위축되자 유가증권 투자를 확대하였고, 금리위험과 유동성 위험에 노출
 - 바젤위원회의 금리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대해 감독당국의 감독 부재
-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의 대규모 유가증권 매도 손실 및 평가 손실이 알려지면서뱅크런 발생

SVB 자산 및 부채

(단위: 억 달러)

자산		부채	
유가증권	1,202	예금	1,731
합계	2,118	합계	1,956

주: 2022년 말 기준임
 자료: SVB Financial Group(2023. 2), 연차보고서

SVB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만기 구성

(단위: 억 달러, %)

구분	1년 이내	1-5년	5-10년	10년 초과	합계
매도가능증권	11	148	30	72	261
만기보유증권	1	7	45	860	913
계	12	155	75	932	1,174
구성비	1	13	6	7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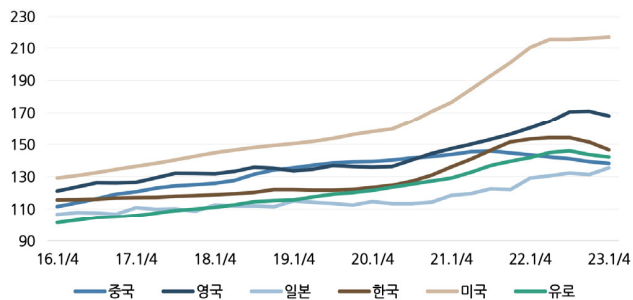
주: 2022년 말 기준임
 자료: SVB Financial Group(2023. 2), 연차보고서

주요국 주택가격은 국가별로 차별화

- 코로나19 충격에도 상승하던 주요국 주택가격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하락
 - 중국의 경우 주택가격은 코로나19 충격 직후 하락세 지속
- 미국의 경우에도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준금리 간의 관계를 볼 때 향후 주택가격 상승은 제한적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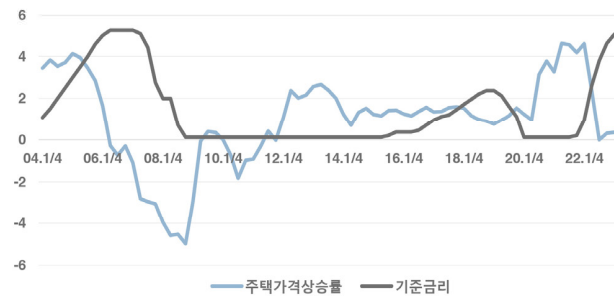
주요국 주택가격 지수

(단위: %)



미국 기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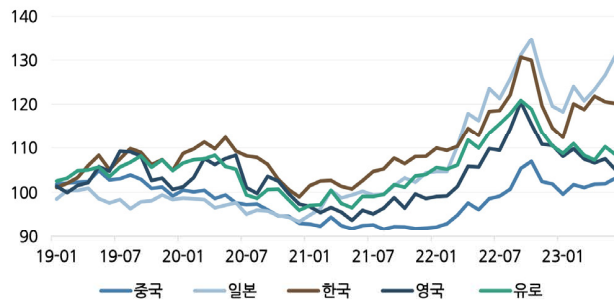


2. 세계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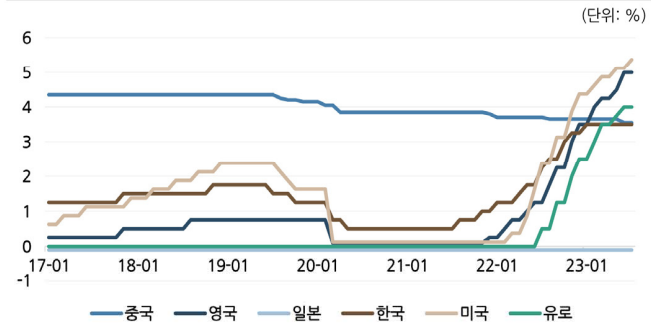
주요국 대미 달러 환율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좌우

- 2023년 들어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된 한국·일본·중국은 환율 약세, 기준금리 격차가 축소된 영국과 유로 지역은 환율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미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기대로 달러 강세
- 코로나19 충격 이전과 비교하면 주요국 통화는 달러에 대해 약세

주요국 대미 환율



주요국 기준금리



3

국내경제 동향

3. 국내경제 동향

GDP 성장세 둔화

· 우리나라 역시 GDP 성장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소비 리밸런싱에 따른 소비 부진과 설비투자 위축이 가장 큰 원인이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불황형 흑자)하여 GDP 성장세 하락을 일부 상쇄

국내경제 동향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2023년
GDP	2.2	-0.7	4.3	2.6	0.9	1.8	1.4
민간소비	2.1	-4.8	3.6	4.1	3.0	1.0	2.0
건설	-1.7	1.5	-1.6	-2.8	2.1	-0.5	2.7
설비	-6.6	7.2	9.3	-0.9	4.9	-10.3	-3.0
지적재산생산물투자	3.1	3.4	6.1	5.0	2.8	3.5	3.1
재화수출	0.2	-1.7	11.1	3.6	-1.1	2.6	0.7
재화수입	-1.9	-3.1	10.1	4.3	1.8	-3.4	-0.8
실업률	3.8	3.9	3.7	2.9	3.0	2.8	2.9
경상수지	594	759	852	298	24	246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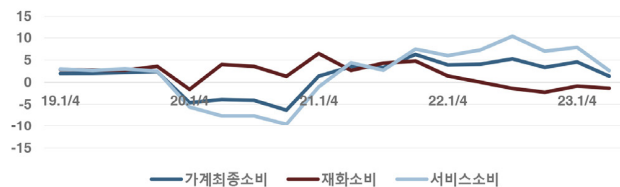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23. 8), 경제전망보고서; 경제통계시스템

3. 국내경제 동향

소비·투자·수출입 모두 세계경제와 동일한 흐름

가계소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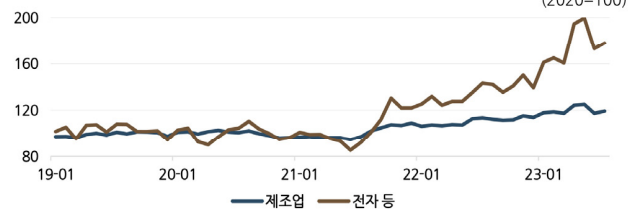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제조업 재고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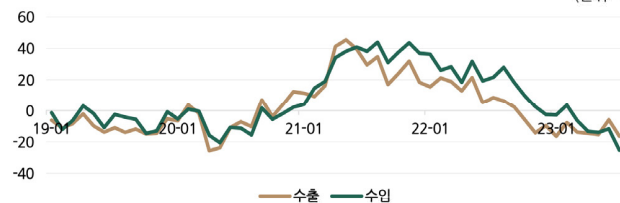
(2020=1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출 수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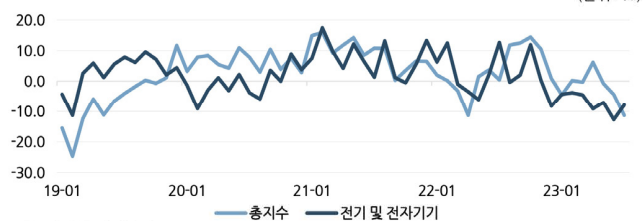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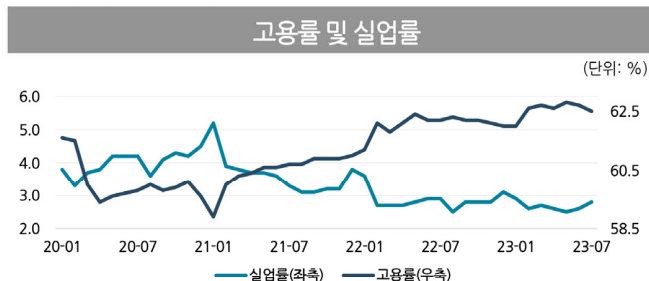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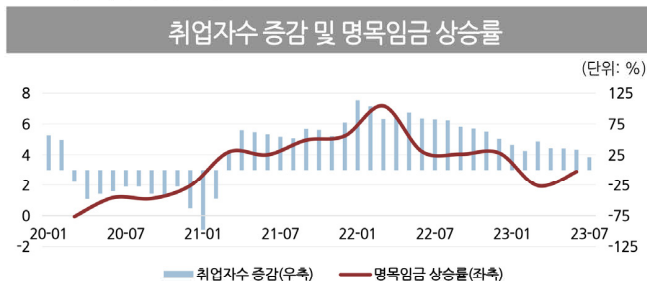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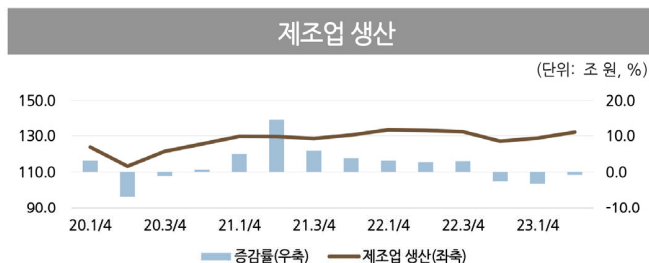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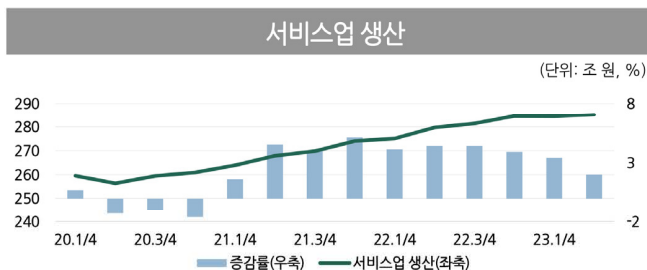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국내경제 동향

생산·고용·임금 등도 세계경제와 동일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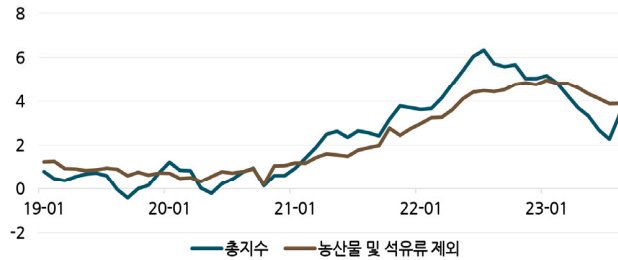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 국제유가 안정 및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 그러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소비자물가의 경우 상승률 둔화세가 크지 않으며, 서비스물가는 미국과 달리 주택가격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승률 지속(Sticky)
 -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과 임금 인상 등에 취약한 상황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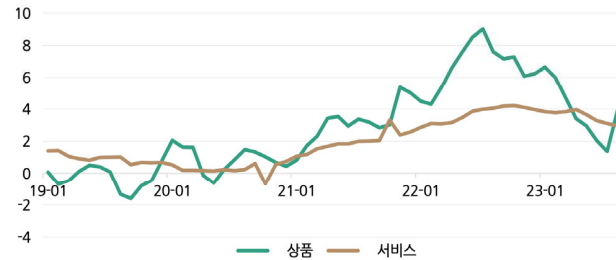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품 및 서비스물가 상승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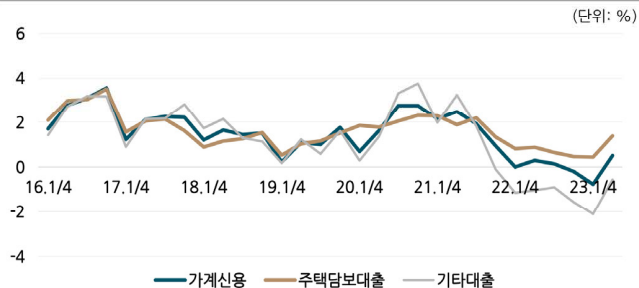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국내경제 동향

가계대출 증가세로 전환, 주택가격 하락 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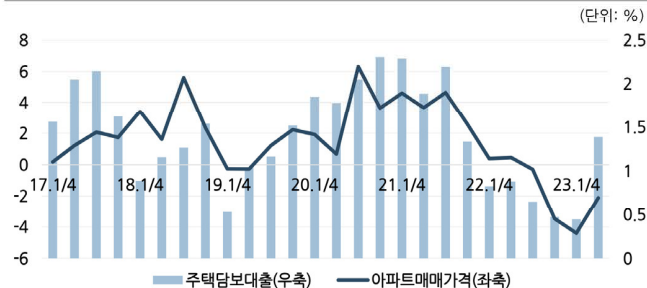
- 2022년 하락하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3년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
 - 특례보증자리론, 50년 주담대 등에 따른 현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
-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가격은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서울 아파트가격은 전기 대비 하락 후 상승
 - 서울 전체로는 3/4분기 들어, 강남의 경우 2/4분기 들어 전기 대비로는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하락

가계신용 증가율



주: 전기 대비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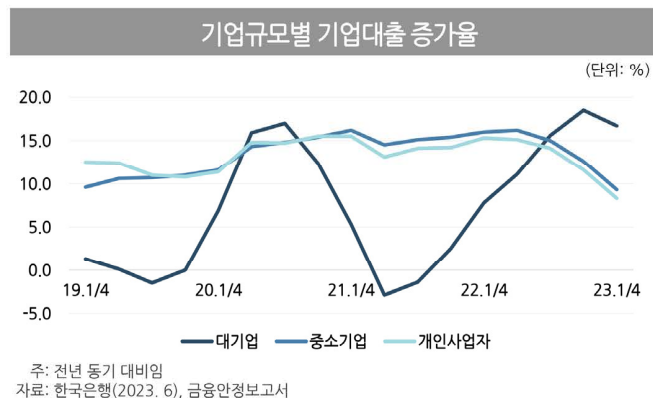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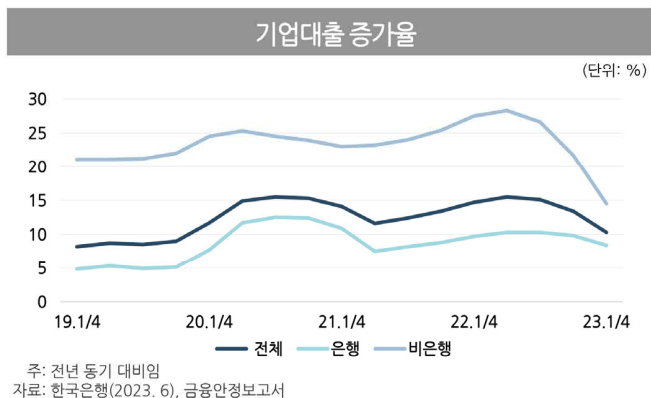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



주: 전기 대비이며, 아파트매매가격은 서울가격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

- 코로나19 충격 이후 유동성 확보,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대출이 증가하면서 높아진 기업대출 증가율은 2023년 들어 크게 둔화
- 그러나 코로나19 충격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대기업은 운전자금 수요로 높은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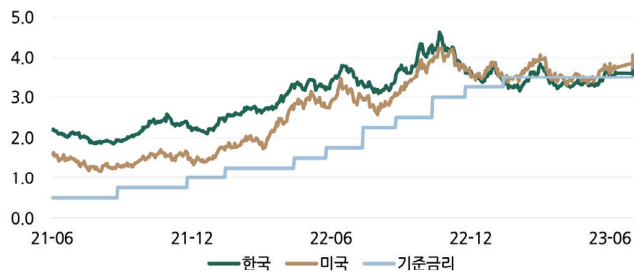
3. 국내경제 동향

국채 수익률, 미국 국채 수익률과 동조

- 2022년 말부터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미국 국채 수익률과 동조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은 미국 국채 수익률과 같이 하락
 - 향후 시장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보다 미국 국채 수익률 향배에 따라 결정 예상
-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하락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상회

한국(3년)과 미국(10년) 국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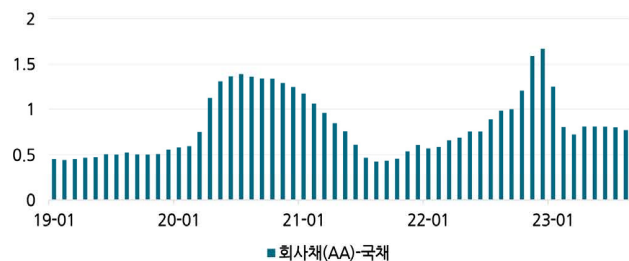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FRB, St. Louis Statistics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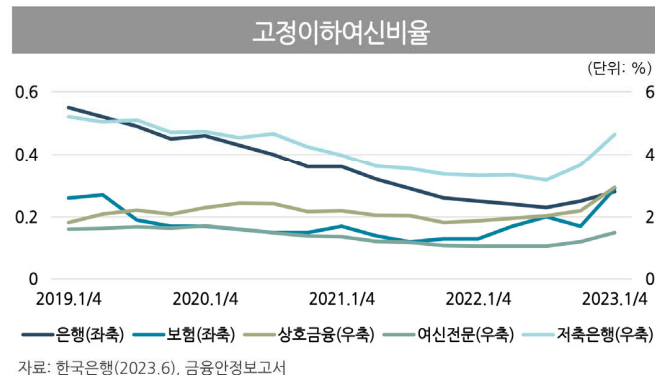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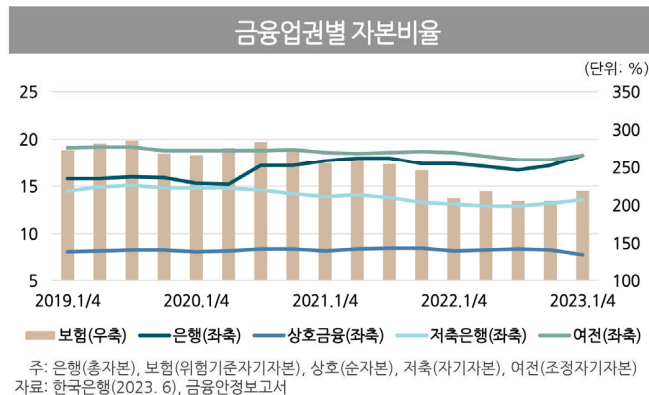
(단위: %p)



주: 회사채(3년, AA)-국채(3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산업 건전성 소폭 개선

- 2023년 들어 상호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업의 경우 자본비율이 소폭 개선
 - 그러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보험업은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매도가능증권 평가손)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들어 모든 금융업에서 상승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은행을 제외하고 이전 수준을 상회



4

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국내외 성장률 2023년 수준 유지 전망

-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3년 수준이 예상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소 개선될 전망
- 우리나라는 소비 리밸런싱 마무리로 재화 소비와 수출, 그리고 이에 따른 설비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코로나19 충격 이전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더 낮은 저성장)으로 진입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01-08	2011-19	2023-28
세계	2.8	-2.8	6.3	3.4	2.8/3.0	3.0	4.2	3.5	3.0
선진국	1.7	-4.2	5.4	2.7	1.3/1.5	1.4	2.2	1.9	1.6
개도국	3.6	-1.7	6.9	4.0	3.9/4.0	4.2/4.1	6.5	4.8	4.0
유로	1.6	-6.1	5.4	3.5	0.8/0.9	1.4/1.5	1.8	1.3	1.4
중국	6.0	2.2	8.5	3.0	5.2	4.5	10.7	7.3	4.1
일본	-0.4	-4.3	2.1	1.1	1.3/1.4	1.0	0.9	0.9	0.7
영국	1.6	-11.0	7.6	4.0	-0.3	1.0	2.1	2.0	1.4
미국	2.3	-2.8	5.9	2.1	1.6/1.8	1.1/1.0	2.2	2.2	1.8
한국	2.2	-0.7	4.1	2.6	1.5	2.4	4.9	2.9	2.2

주: / 이하 통계는 2023. 7 수정 전망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 4; 2023. 7)

4. 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국내외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3년 수준 하회 전망

- 2024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준금리 인상과 국제유가 안정에 따라 2023년에 비해 하락
-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새로운 균형(이전보다 높아진 상승률: 국제유가 안정 전제)으로 진입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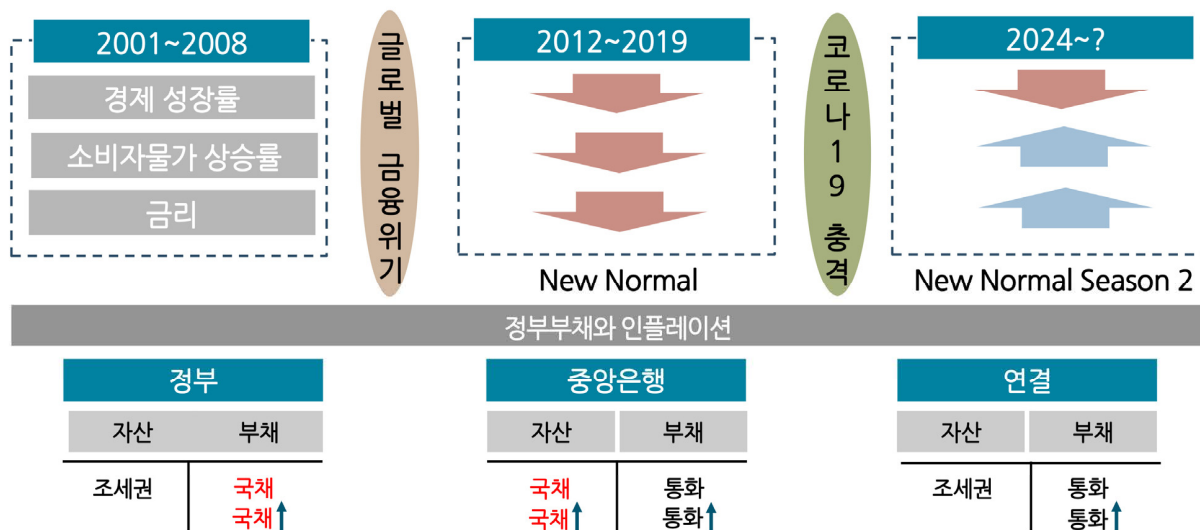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01-08	2011-19	2023-28
세계	3.5	3.2	4.7	8.7	7.0	4.9	4.3	3.5	4.4
선진국	1.4	0.7	3.1	7.3	4.7	2.6	2.2	1.5	2.5
개도국	5.1	5.2	5.9	9.8	6.5	5.2	6.8	5.2	5.7
유로	1.2	0.3	2.6	8.4	5.3	2.9	2.3	1.3	2.7
중국	2.9	2.5	0.9	1.9	2.0	2.2	2.4	2.5	2.2
일본	0.5	-0.0	-0.2	2.5	2.7	2.2	-0.1	0.6	1.8
영국	1.8	0.9	2.6	9.1	6.8	3.0	1.9	2.1	2.9
미국	1.8	1.3	4.7	8.0	4.5	2.3	2.8	1.8	2.5
한국	0.4	0.5	2.5	5.1	3.5	2.3	3.3	1.6	2.3

자료: IMF(2023. 4),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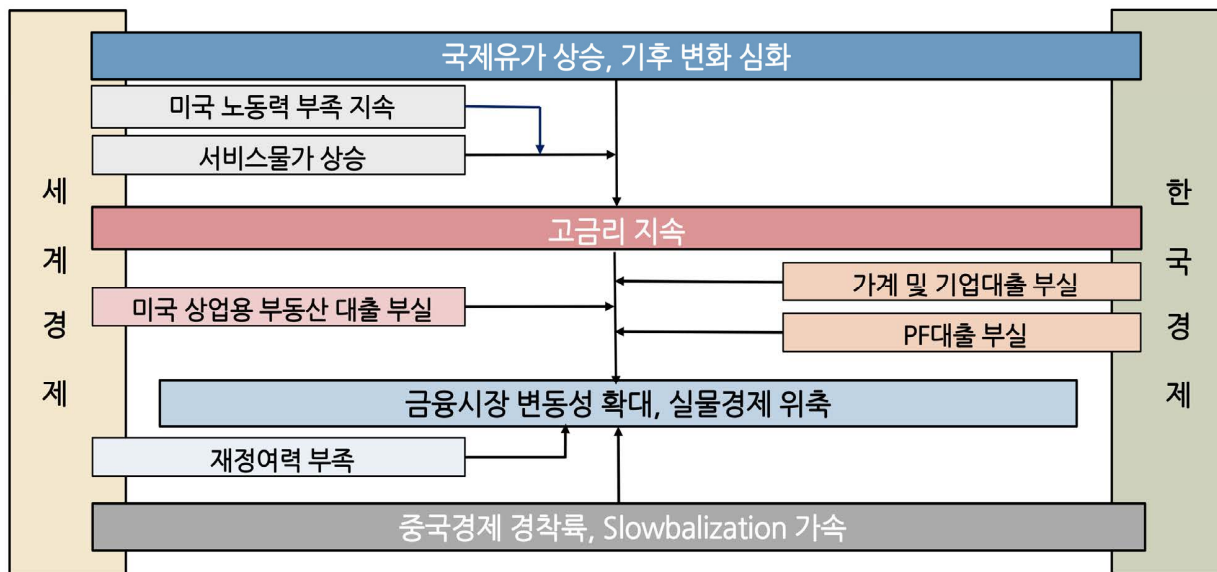
New Normal Season 2

- 2024년 국내외 경제는 뉴노말(New Normal) 시대와 다른 새로운 균형 진입 예상
- 뉴노말(New Normal) 시대에 비해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금리는 높아질 전망(국제유가 안정이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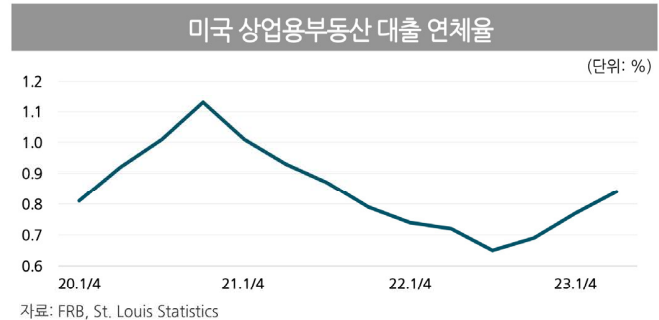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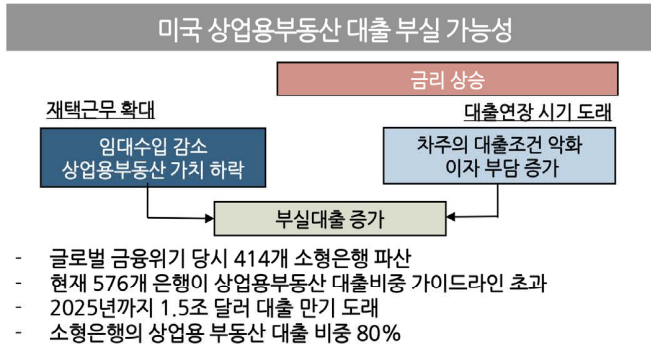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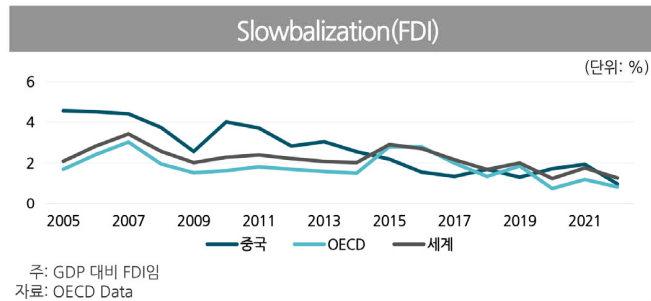
4. 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다양한 잠재 위험요인 상존



4. 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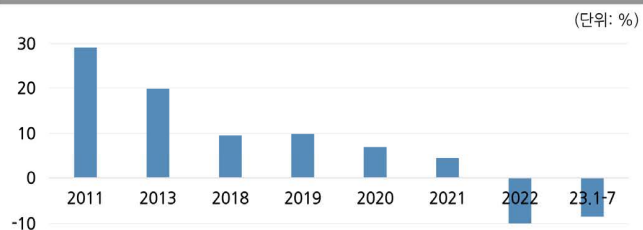
[참고] Slowbalization 및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험



4. 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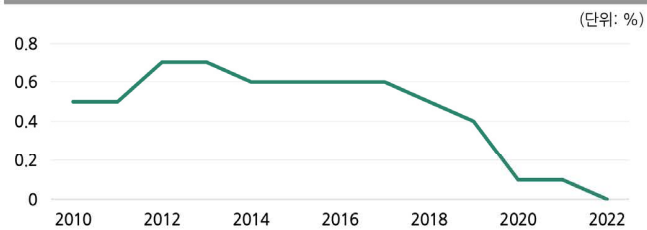
[참고] 중국경제 경착륙

중국 부동산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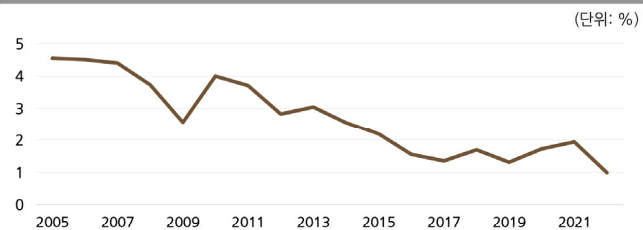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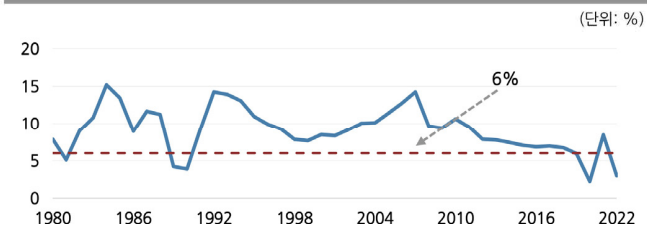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Statistics

중국 외국인직접투자(GDP 대비) 비율



자료: World Bank Statistics

중국 경제성장률



자료: World Bank Statistics

4. 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참고] 가계 및 기업대출, 부동산PF대출 부실

GDP 대비 가계 및 기업부채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가계	기업	가계	기업	가계	기업	가계	기업
2019	95	101	56	150	63	102	75	76
2022	105	120	61	158	68	118	74	78

구분	EU		영국		프랑스		독일	
	가계	기업	가계	기업	가계	기업	가계	기업
2019	57	104	84	71	62	151	53	69
2022	57	105	84	68	66	162	55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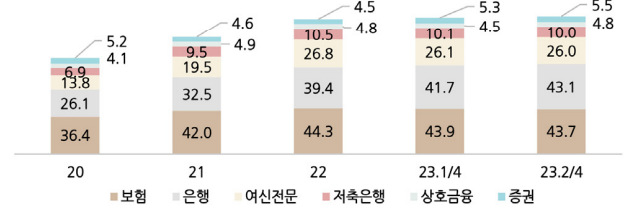
주: 1) 가계부채보다 주택가격이 선행함

2) 가계부채가 증가할 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전무함

자료: BIS Statistics

부동산PF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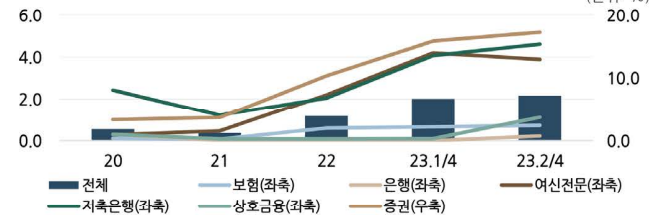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금융감독원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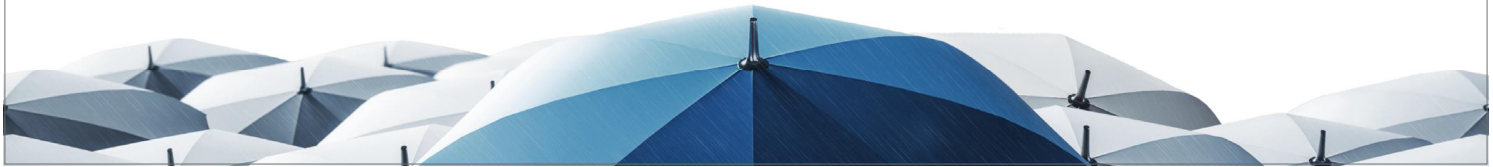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금융시장분석실





II.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

요약

완만한 보험료 성장 전망

- 2024년에는 가계의 초과저축이 감소하고 영업경쟁이 2023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함
 -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명목소비 증가, 부채 상환 등으로 가계의 초과저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2024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2023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역성장이 예상되나, 질병, 건강, 퇴직연금의 성장으로 0.6% 증가할 전망임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나 성장률은 2023년(6.7%)보다 둔화된 4.4%가 될 것임
-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보장성보험과 일반저축성보험은 감소하나 변액저축성보험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대부분 종목에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됨

1. 요약

보험이익 증가, 투자이익 변동성 확대 예상

- 보험계약마진(CSM)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23년과 2024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의 대략적인 CSM 규모는 2023년 61.9조 원, 2024년 69.9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손해보험*의 대략적인 CSM 규모는 2023년 64.6조 원, 2024년 67.9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사를 대상으로 추정함
- 높은 CSM 성장률로 보험이익 증가가 예상되나, 투자이익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22년부터 회사 간 수익성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고금리 지속으로 이러한 경향이 2024년에도 지속될 수 있음
 -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손익 관리 역량에 따라 회사의 이익 규모가 변동할 것임
- 건전성이 낮은 회사들은 이익의 내부 유보를 극대화하고 자산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임
 -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회사일수록 높은 자본성증권 의존도, 낮은 수익성, 높은 투자손익의 잠재 변동성을 나타냄
 - 거시적 충격에 건전성이 낮은 회사의 유동성, 수익성, 건전성이 더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주요 이슈와 과제

- 신계약 CSM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로 보험산업 불균형 성장과 소비자신뢰 저하가 심화될 수 있음
 -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시장의 정보비대칭성 완화, 보험회사의 신사업 확대 등이 필요함
-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는 상품 혁신, 판매 전문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야 함
 - 아울러 당국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에 따른 보험시장의 변화와 영향도 평가를 실시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코로나19 이후 제고되었으나, 사업모형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고도화, 디지털 보험 활성화, 금융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함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국회에서 진행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작업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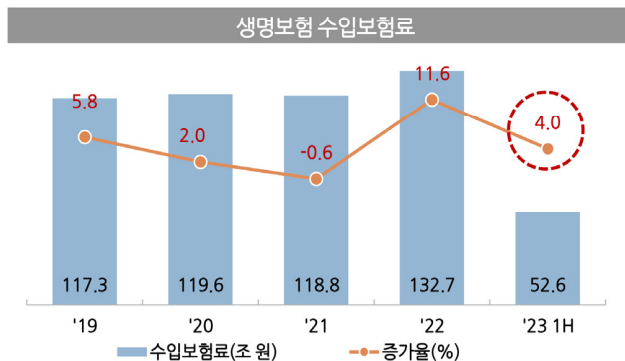
성장성

가. 생명보험 동향
나. 손해보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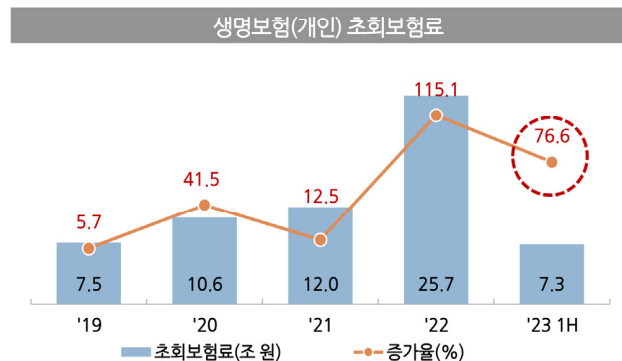
다. 보험료 전망

가. 생명보험 동향 1) 보험료 전체

- 2023년 상반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4.0%(YoY) 성장하였으며, 초회보험료는 76.6%(YoY) 성장함



자료: 보험회사 임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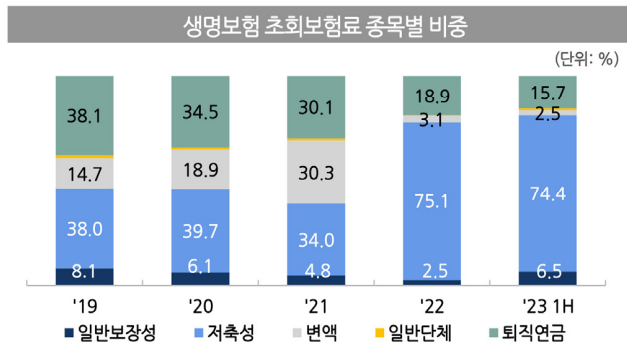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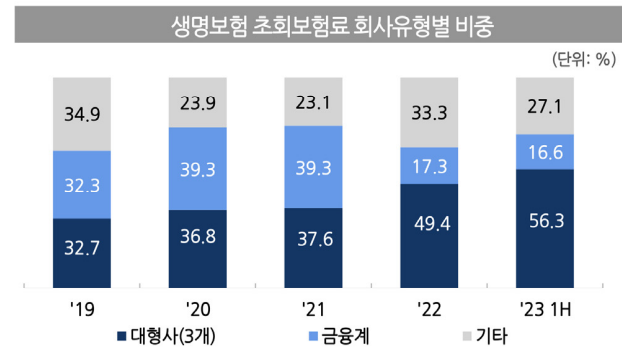
2. 성장성

가. 생명보험 동향 2) 초회보험료 분석

- 2023년 상반기 변액보험은 감소했으나 보장성과 저축성보험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됨
 - 보험계약마진(CSM) 및 유동성 확보 목적의 공급과 연금 및 저축 상품 수요가 맞물린 결과임
- 대형사의 점유율 상승세가 2022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음



자료: 보험회사 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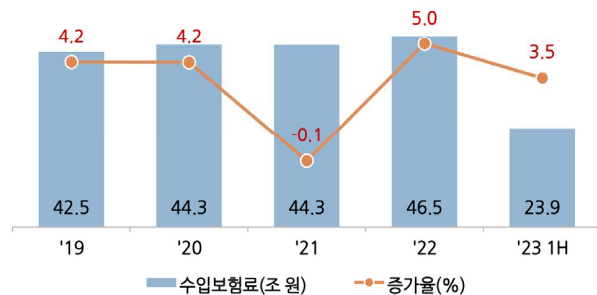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입무보고서

가. 생명보험 동향 3) 보장성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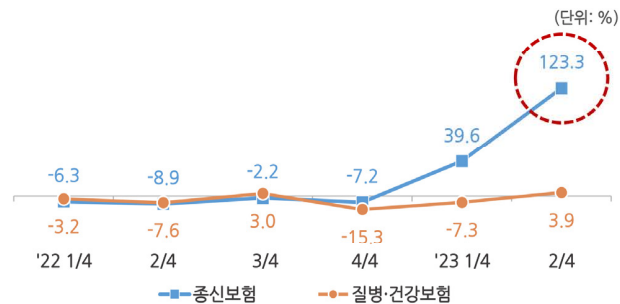
- 2023년 상반기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 확대가 두드러짐
 - 종신보험의 저축 기능을 강조한 전략이 수요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 단, 금융당국의 조치로 인해 2023년 9월부터는 종신보험 판매 감소가 예상됨

일반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종신 및 질병·건강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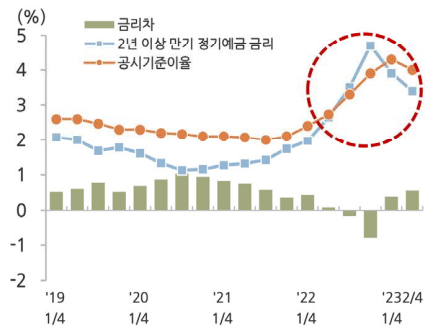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성장성

가. 생명보험 동향 4) 저축 및 변액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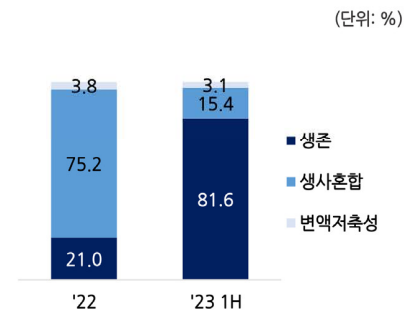
- 2022년 하반기부터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확대되었으나 향후 성장세는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
- 보험사의 유동성 확보 목적과 고금리 장기 저축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보임
- 2022년에는 주로 생사혼합보험이 판매되었지만, 2023년 상반기에는 주로 생존보험이 판매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유지되며 감소세가 지속됨

정기예금 금리 및 공시기준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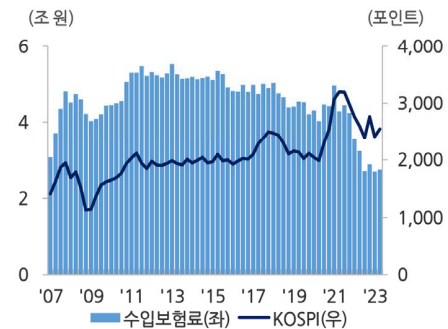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저축성상품 중목별 초회보험료 비중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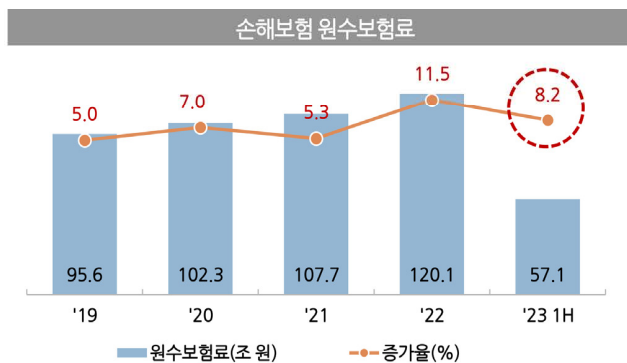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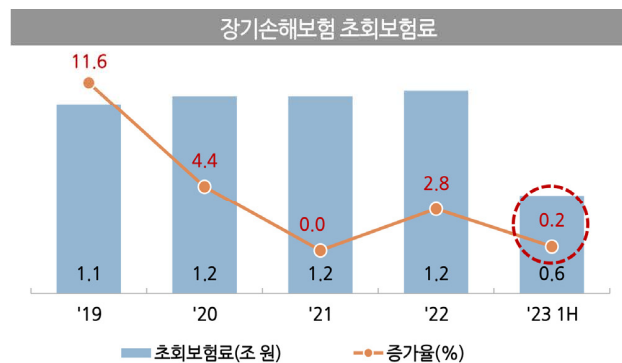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나. 손해보험 동향 1) 보험료 전체

- 2023년 상반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8.2%(YoY)로 고성장을 유지하였으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0.2%(YoY)의 성장률을 기록함



자료: 보험회사 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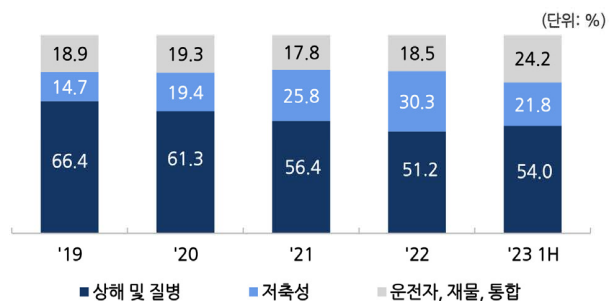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입무보고서

2. 성장성

나. 손해보험 동향 2)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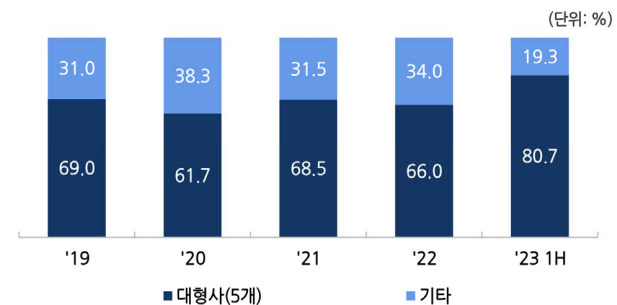
- 2023년 상반기 운전자·재물·통합보험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되었으며, 대형사의 점유율이 상승함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종목별 비중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회사유형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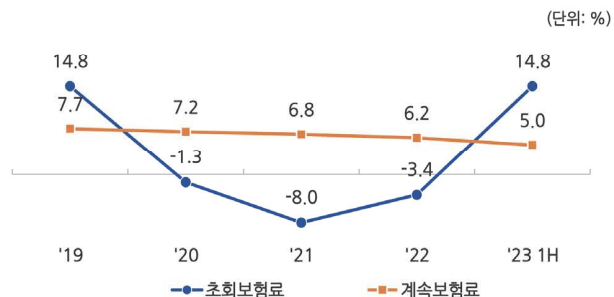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나. 손해보험 동향 3) 장기 및 자동차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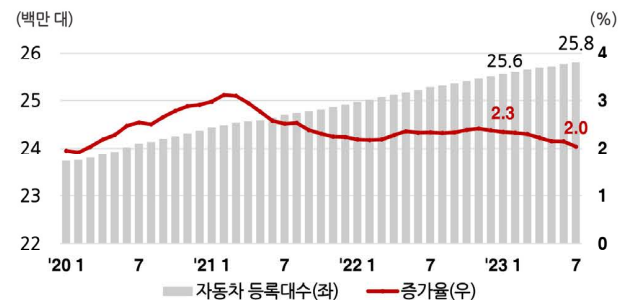
- 장기보장성보험은 2023년 상반기 초회보험료가 대폭 성장했지만, 계속보험료 성장률은 감소세임
- 2023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감소 등으로 자동차보험 성장은 약화되고 있음
 - 또한, 온라인 채널 비중 증가, 마일리지 특약 의무 가입 등도 자동차보험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증가율



주: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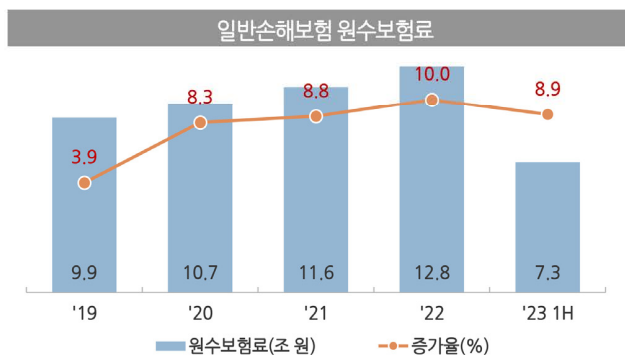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2. 성장성

나. 손해보험 동향 4) 일반손해보험

- 일반손해보험은 해상·보증·특종보험 성장으로 2023년 상반기 고성장을 지속함
- 수출입 물동량 증가, 신용보증 확대, 책임보험 시장 확대로 해상·보증·특종보험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단위: %)

구분	'22 2/4	3/4	4/4	'23 1/4	2/4
화재	0.1	-0.9	0.3	2.3	0.9
해상	28.4	10.6	25.4	21.7	3.0
보증	1.0	4.0	2.7	1.8	15.4
특종	8.7	10.4	9.9	5.9	11.8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다. 보험료 전망 1) 주요 전제

제한적 경기 회복, 영업 경쟁 유지 등을 전제로 보수적 관점에서 전망

-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명목소비 증가, 부채 상환 등으로 가계의 초과저축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
 - 초과저축은 금융자산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비나 부채상환 등이 증가할 경우 감소함
- 보험영업 경쟁은 2023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

(수요측면) 제한적 경기 회복, 고물가·고금리

- ✓ 가계의 초과저축 감소
- ✓ 추가지수 정체

(공급측면) 영업 경쟁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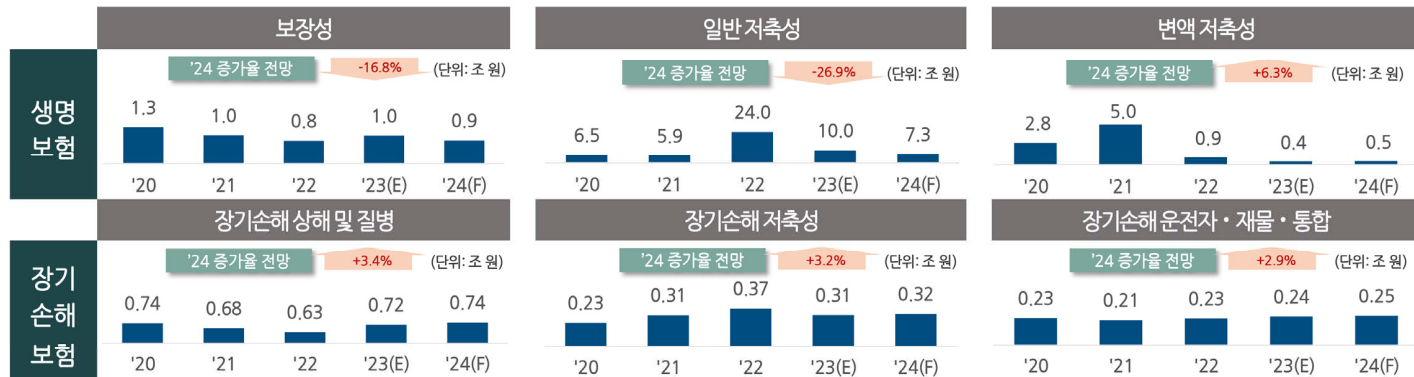
보험산업 영향

- ✓ 저축성 및 변액보험 수요 둔화
- ✓ 보장성보험 쏠림 현상 지속
- ✓ 단, 금융 불안이 확대될 경우, 위험 회피 현상 및 예비적 저축 증가로 변액보험 수요는 감소하고 저축성보험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음

2. 성장성

다. 보험료 전망 2) 초회보험료: 종목별

- 종신보험 판매 감소로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성장률은 -16.8% 전망
- 생명보험 일반저축성보험은 역성장하지만 연금보험 수요로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 예상
- 변액 저축성보험은 침체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
- 장기손해보험은 대부분의 종목에서 완만한 증가 예상



주: 초회보험료는 1회차 보험료로 일시납 보험료와 비일시납 보험료를 포함함

다. 보험료 전망 2) 초회보험료: 전체

· 2024년 보험산업 초회보험료*는 22.0% 감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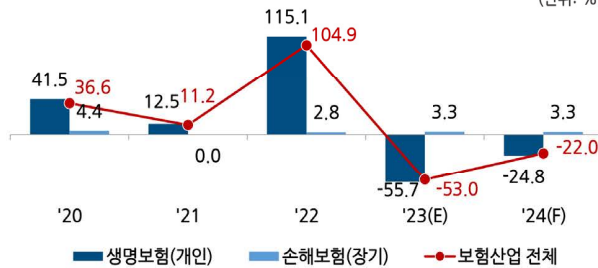
-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2024년 -24.8% 예상
-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2023년과 동일한 3.3% 예상

*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 기준이며,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임

·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규모는 2023년 12.7조 원, 2024년 9.9조 원으로 전망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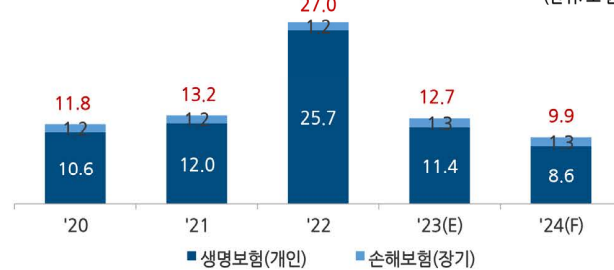
(단위: %)



주: 생명보험의 경우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함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규모 전망

(단위: 조 원)



주: 생명보험의 경우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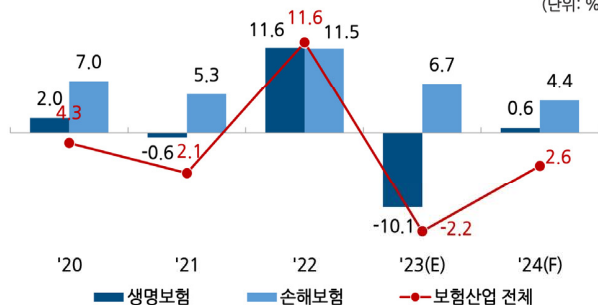
2. 성장성

다. 보험료 전망 3) 수입(원수)보험료: 전체

- 2024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0.6%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23년 6.7%에서 2024년 4.4%로 성장세 둔화 전망
- 2024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규모는 253.8조 원 수준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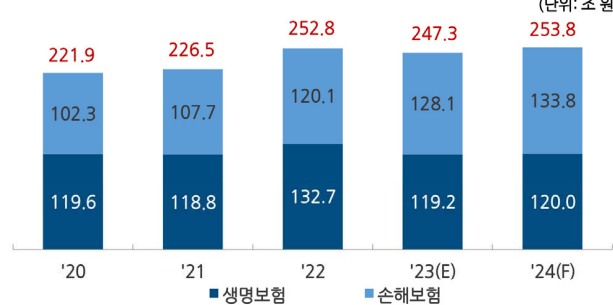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단위: %)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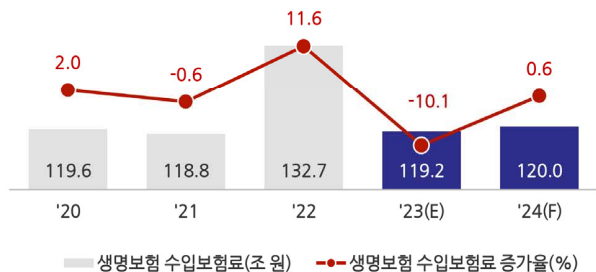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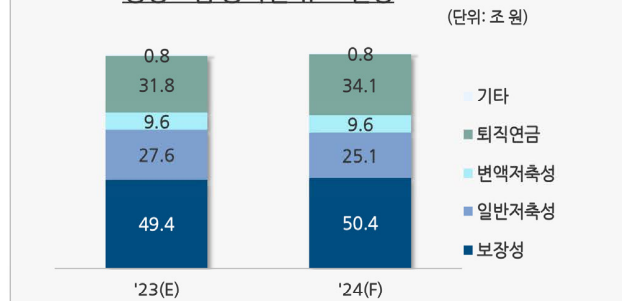
다. 보험료 전망 3) 수입보험료: 생명보험

- 2024년 저축성보험의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질병·건강보험과 퇴직연금의 성장으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0.6% 증가할 전망
-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신규수요 축소에도 건강 및 질병보험과 갱신보험료 확대로 2.0% 성장 전망
- 저축성보험(변액저축성 포함)은 가계 수지 악화 및 주가지수 정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6.6% 성장 전망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전망



생명보험 종목별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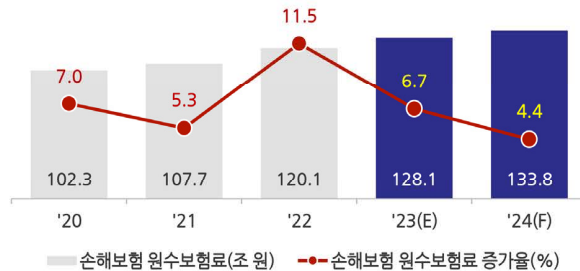


2. 성장성

다. 보험료 전망 3) 원수보험료: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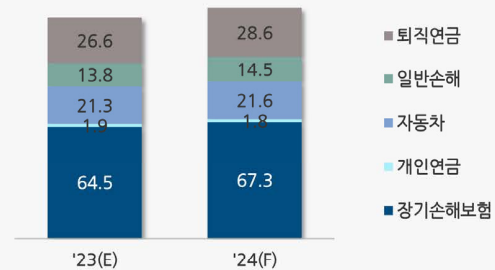
- 2024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성장률은 둔화되어 4.4%로 전망
- 장기보험은 상해·질병과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4.3% 성장할 전망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조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1.8%)
- 일반손해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신규 리스크 담보 확대 등으로 5.2% 성장 전망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전망



손해보험 종목별 규모 전망

(단위: 조 원)



3

수익성과 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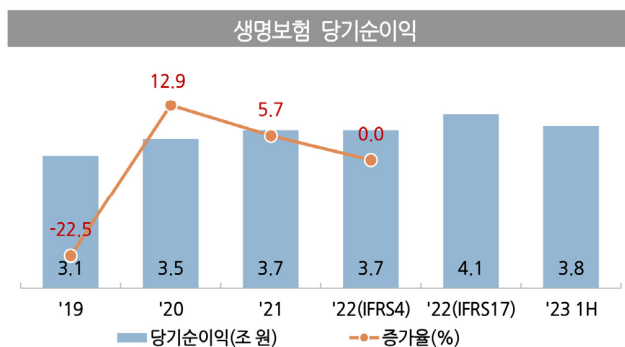
가. 당기순이익
나. 보험계약마진(CSM)

다. 진단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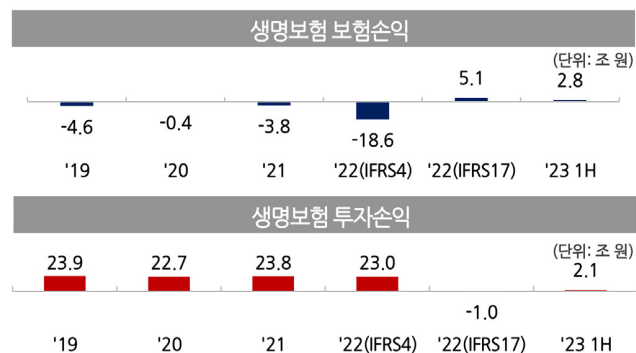
3. 수익성과 건전성

가. 당기순이익 1) 생명보험

- 회계기준 변경의 효과 등으로 2023년 상반기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3.8조 원으로 전년도(IFRS4 기준) 전체 당기순이익 3.7조 원을 상회함
- 2023년 상반기 보험손익은 2.8조 원, 투자손익은 2.1조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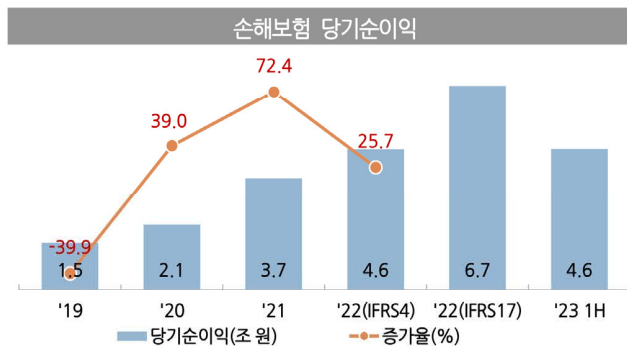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사업실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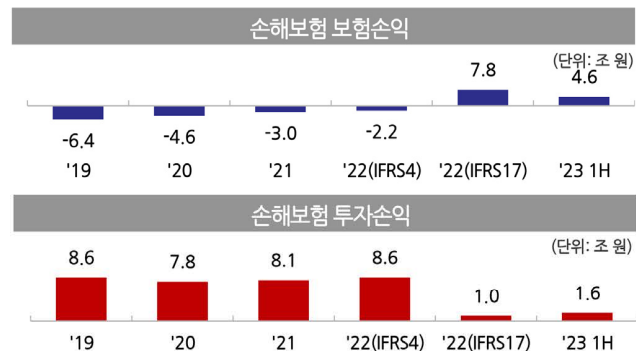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사업실적표

가. 당기순이익 2) 손해보험

- 회계기준 변경의 효과로 2023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6조 원으로 전년도(IFRS4 기준) 전체 당기순이익에 육박
- 2023년 상반기 보험손익은 4.6조 원, 투자손익은 1.6조 원임



주: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 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사업실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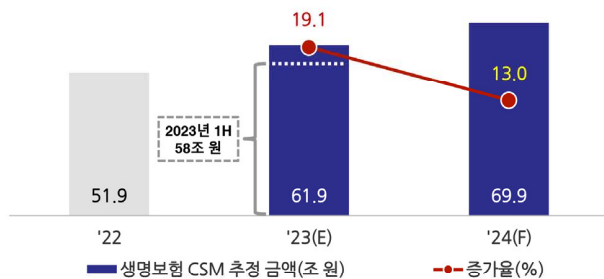
주: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 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사업실적표

3. 수익성과 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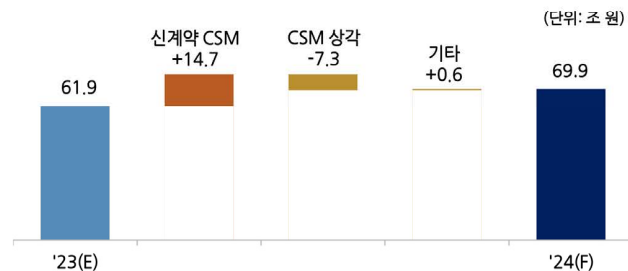
나. 보험계약마진(CSM) 1) 생명보험

- 현재 CSM 추세와 향후 초회보험료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생명보험의 대략적인 보험계약마진(CSM) 규모는 2023년 61.9조 원, 2024년 69.9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
- 2024년 생명보험회사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14.7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회사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규모는 7.3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생명보험 보험계약마진(CSM)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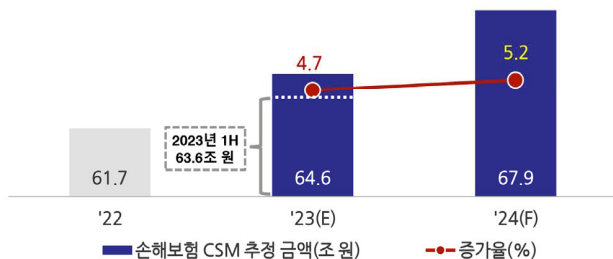
생명보험 보험계약마진(CSM) Movement



나. 보험계약마진(CSM) 2)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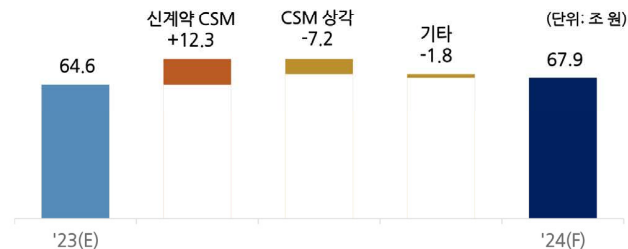
- 현재 CSM 추세와 향후 초회보험료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손해보험의 대략적인 보험계약마진(CSM) 규모는 2023년 64.6조 원, 2024년 67.9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
- 2024년 손해보험회사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12.3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손해보험회사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규모는 7.2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손해보험 보험계약마진(CSM) 전망



주: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함

손해보험 보험계약마진(CSM)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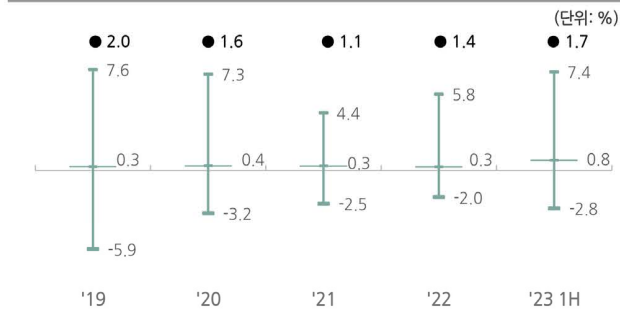
주: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함

3. 수익성과 건전성

다. 진단과 전망 1)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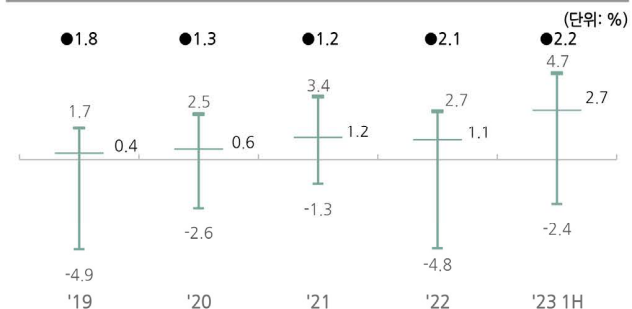
- 높은 CSM 성장률로 인해 산업의 보험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투자손익의 변동성은 높을 것임
- 긴축 통화정책이 시작된 2022년부터 회사 간 수익성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고금리 지속으로 이러한 경향이 2024년에도 지속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손익 관리 역량에 따라 회사의 이익 규모가 변동할 것임

생명보험회사 ROA 분포



주: 1) ●는 표준편차 값임
2) 차트는 ROA의 최댓값, 중앙값, 최솟값을 나타냄
자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ROA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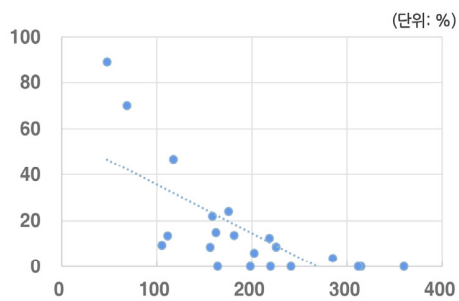
주: 1) ●는 표준편차 값임
2) 차트는 ROA의 최댓값, 중앙값, 최솟값을 나타냄
3)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 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3. 수익성과 건전성

다. 진단과 전망 2) 건전성: 생명보험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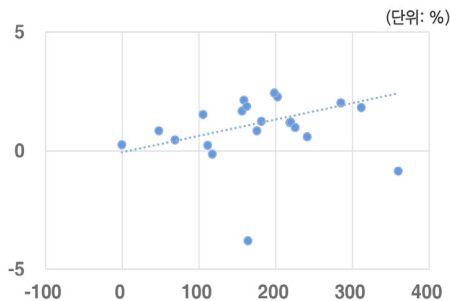
- 지급여력비율이 낮을수록 자본성증권 의존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으며 투자손익의 잠재 변동성이 큰 경향
- 이는 거시적 충격에 건전성이 낮은 회사의 유동성, 수익성, 건전성이 더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
- 건전성이 낮은 회사들은 이익 유보를 극대화하고 자산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기

지급여력비율(X축)과 자본성증권 비율(Y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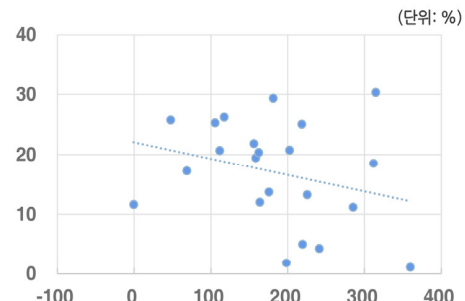
주: 1)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 비율임
2) 지급여력금액이 (-) 값인 푸른현대생명보험은 제외함
3) 2023년 3월 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지급여력비율(X축)과 ROA(Y축)



주: 1)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 비율임
2) 2023년 3월 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지급여력비율(X축)과 FVPL자산 비율(Y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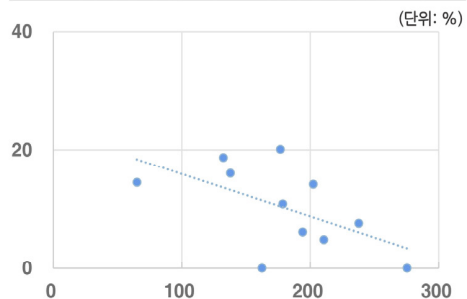
주: 1)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 비율임
2) 2023년 3월 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3. 수익성과 건전성

다. 진단과 전망 2) 건전성: 손해보험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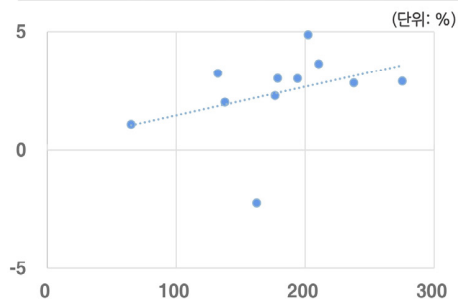
- 지급여력비율이 낮을수록 자본성증권 의존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으며 투자손익의 잠재 변동성이 큰 경향
- 이는 거시적 충격에 건전성이 낮은 회사의 유동성, 수익성, 건전성이 더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
- 건전성이 낮은 회사들은 이익 유보를 극대화하고 자산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기

지급여력비율(X축)과 자본성증권 비율(Y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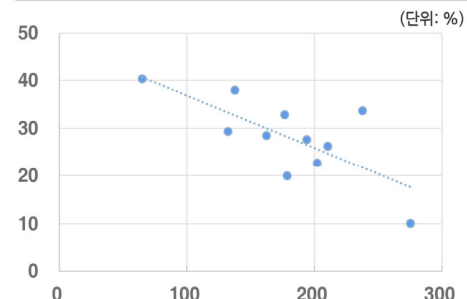
주: 1)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 비율임
 2) 2023년 3월 말 기준임
 3)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 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지급여력비율(X축)과 ROA(Y축)



주: 1)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 비율임
 2) 2023년 3월 말 기준임
 3)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 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지급여력비율(X축)과 FVPL자산 비율(Y축)



주: 1) 2023년 상반기 기준임
 2)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 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4

주요 이슈와 과제

가. 영업경쟁 심화
나. 신채널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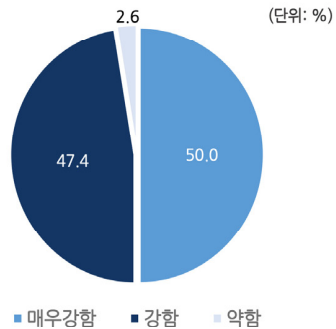
다. 디지털 전환
라. 보험법을 개정 대응

4. 주요 이슈와 과제

가. 영업경쟁 심화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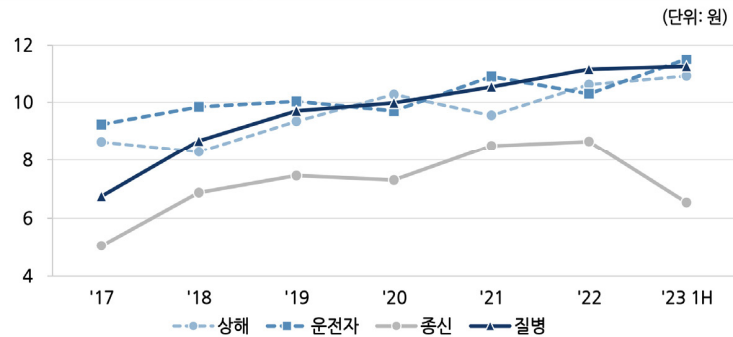
- 변화된 회계제도로 인해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계약 CSM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
 - 대다수의 보험회사 CEO는 현재 보험영업 경쟁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원인으로 GA의 높은 시장지배력과 변화된 회계제도를 가장 많이 선택
 - 보장성보험의 초회보험료 1원당 신계약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보장성보험의 판매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영업경쟁 수준 평가



자료: 조영현최원(2023.9), '2023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CEOReport', 보험연구원

보장성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 대비 신계약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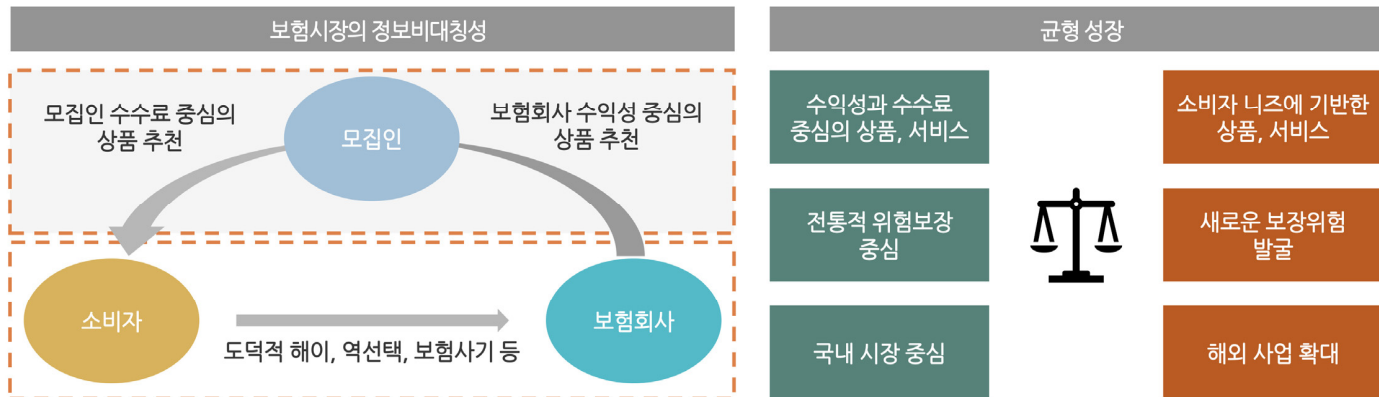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4. 주요 이슈와 과제

가. 영업경쟁 심화 2) 과제

- 보험시장의 높은 정보비대칭성에 기반한 공급·판매자의 전략으로 인해 영업경쟁이 심화될수록 특정 보험상품 중심의 불균형 성장과 소비자신뢰 저하가 일어날 수 있음
- 정보비대칭성 완화와 신사업 확대 등을 통한 보험산업의 균형 성장과 소비자신뢰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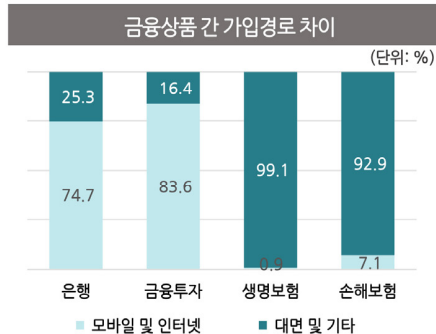


자료: 황인창(2022), 「보험시장의 미래: 디지털전환을 위한 과제」,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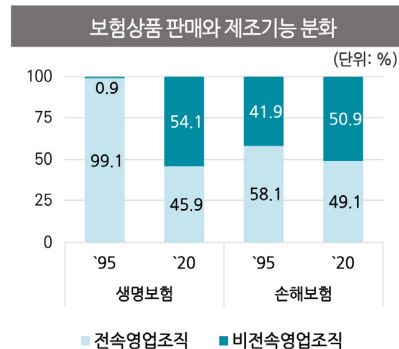
4. 주요 이슈와 과제

나. 신채널 등장 1) 현황

- (대면중심 영업) 사회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면중심의 영업구조 형성
- (제판분리) 방카슈랑스, GA 채널 등 비전속영업조직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증가
 - 생명보험 '95년: 0.9% → '20년: 54.1%, 손해보험 '95년: 41.9% → '20년: 50.9%
- (신채널 유입) 대면채널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서비스 제공 예정



주: 1) 2021년 기준임
 2) 은행은 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건수임
 3) 보험상품의 경우 퇴직연금 제외함
 자료: 한국은행: KRX;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주: 생명보험은 초회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업무보고서

신판매채널의 등장

-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
: '보이는 TM'(2023년)
-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
: '대면채널+디지털기술'(2023년)
-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2024년 시행 예정)

나. 신채널 등장 2) 과제

- (경영대응) 상품경쟁 및 혁신, 판매 전문성 강화, 소비자와의 다양한 접점 확보 및 발굴
→ 고객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유지
- (정책대응)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에 따른 보험시장의 변화 및 영향도 평가
 -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달성 여부 평가,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 실태 평가

온라인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도 시행안

운영방식

- 업무범위
: 보험모집 단계 중 비교·추천만 허용
- 상품유형
: 온라인(CM) 상품
- 상품범위
: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펫보험,
신용보험 등

보완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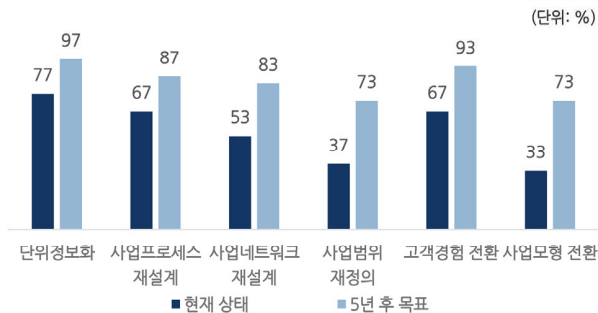
- 소비자보호 장치
: 영업보증금, 수수료 한도 설정
알고리즘 검증, 개인정보 보호
- 공정경쟁
: 특정회사 편중 방지,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

4. 주요 이슈와 과제

다. 디지털 전환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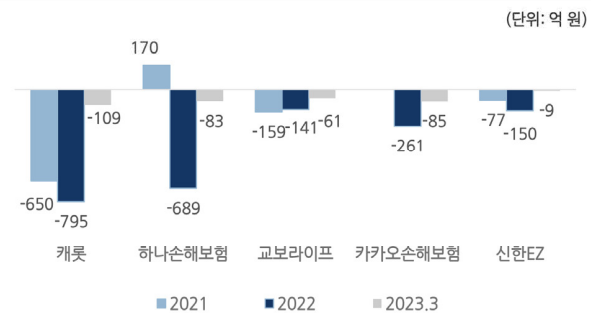
- 보험산업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디지털 전환 수준이 제고되었으나, 사업모형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디지털 보험회사는 적자 상태이며, 사업모델 확장성에서도 한계에 봉착

국내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 현황



자료: 황인장·손재희(2023), 「보험산업 디지털전환 설문조사」, 「CEO Report」, 보험연구원

디지털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자료: 금융감독원

다. 디지털 전환 2) 과제

· 디지털 전환 고도화, 디지털 보험 활성화, 금융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이슈의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디지털 관련 보험산업 주요 이슈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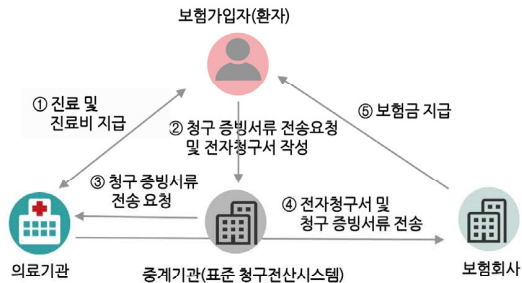
주요 이슈	정책 과제	경영 과제
디지털 전환 수준의 고도화 - 부분적인 효율화, 비용감소를 넘어서는 성과 기대	•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 유인 제공 및 고도화 지원을 위한 업무범위, 자회사, 업무위탁 등 규제 개선	• 디지털 전환이 경영성과 및 시장확장 및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품 서비스 개발
빅테크 보험시장 진출 - 생태계 연결, 공정경쟁 이슈 부상	•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에 대비한 보완장치 마련	• 파트너십 강화, 생태계 연결을 염두에 둔 디지털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임베디드 보험 활성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등)
데이터 활용 활성화 - 각종 데이터 활용 및 흐름을 확대하는 정책* 증가 *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23. 7),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진(23. 7),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고도화 추진(23. 6),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23. 9) 등	• 정부의 각종 데이터 활용 정책의 효과가 보험산업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지원	• 내부 및 외부 데이터의 결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도 확대
디지털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위험, 디지털소외 이슈 부상	•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 제공	•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소외 해소를 위한 상품 서비스 개발 및 내부 점검 강화

4. 주요 이슈와 과제

라. 보험법률 개정 대응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법령에서 정한 중계기관을 통해 운영·관리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통해 효율성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을 도모함
- 국회에서 진행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법 개정과 별도로, 보험사기 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 정보의 공유 및 종합적 관리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운영 방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개정 항목

-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 공표
-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유인 금지
- 보험사기 목적 강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주: 정부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3. 7. 4) 의결 내용임

부록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 종목별 보험료 전망



부록

보험 종목별 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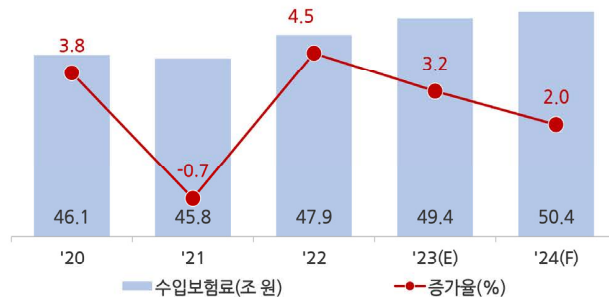
1. 생명보험
2. 손해보험
3. 보험업권 퇴직연금

부록. 보험 종목별 보험료 전망

1-1. 생명보험: 보장성보험(변액보장성보험 포함)

- 보장성보험은 질병 및 건강보험과 계속보험료 확대로 2.0% 성장 전망
-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은 지속
- 질병·건강·간병에 대한 관심 확대로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 확대 전망
- 경기둔화 우려, 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 등과 같은 불확실성은 보험료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
- 제3보험의 업권 간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춘 보험상품 제공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질병 및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
- 제도 변화로 인한 적극적 마케팅
- 계속보험료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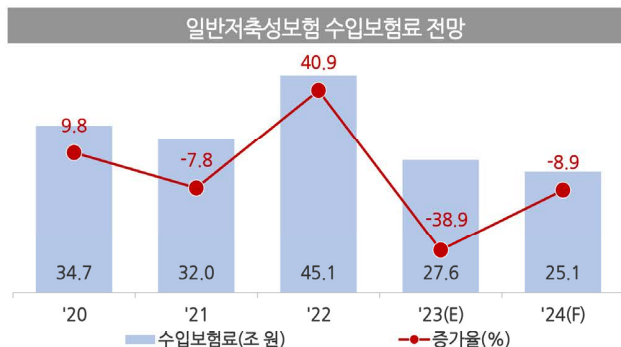
▼ 감소요인

- 경기둔화 우려 및 소비심리 위축
- 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
- 건강보험시장 업권 간 경쟁 확대

1-2. 생명보험: 일반저축성보험

· 일반저축성보험은 저축보험 부진 등으로 8.9% 감소 전망

- 최근 만기 수요 재가입과 전략적 고금리 상품 판매 등으로 일시납 중심의 변동성 확대
- 공시이율 상승, 은퇴인구 증가, 세제혜택 수요 등이 연금보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
- 저축보험은 예·적금 금리 대비 고금리 유지가 어려워 신규수요가 감소할 것
-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일부 전략적 고금리 상품 판매 전략이 나타날 수 있음



▲ 증가요인

- 은퇴인구 증가, 세제혜택 수요 확대
- 공시이율 상승에 따른 수요 증가
- 전략적 고금리 상품 판매

▼ 감소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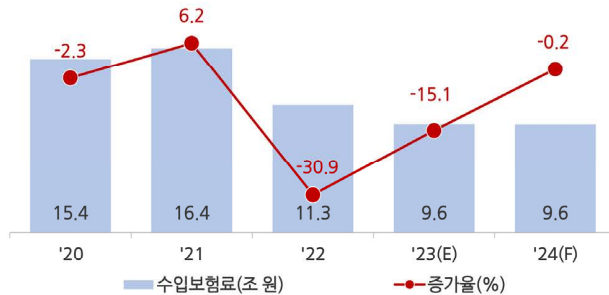
- 예·적금 대비 금리경쟁력 축소
- 저축 및 투자상품 경쟁 심화
- 보장성보험 중심의 판매 전략

부록. 보험 종목별 보험료 전망

1-3. 생명보험: 변액저축성보험

- 변액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0.2% 감소할 것
- 최근 금리상승 기조와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투자형 상품 관심 확대와 리스크 관리 측면의 상품공급 유인으로 신규수요 소폭 회복 예상
- 금리 및 금융시장 안정으로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일 경우 신규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도 있음
- 그러나 타업권 투자형 상품과의 경쟁 확대로 신규판매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투자형 상품에 대한 관심 확대
- 은퇴인구 확대로 변액연금 수요 증가
-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공급 유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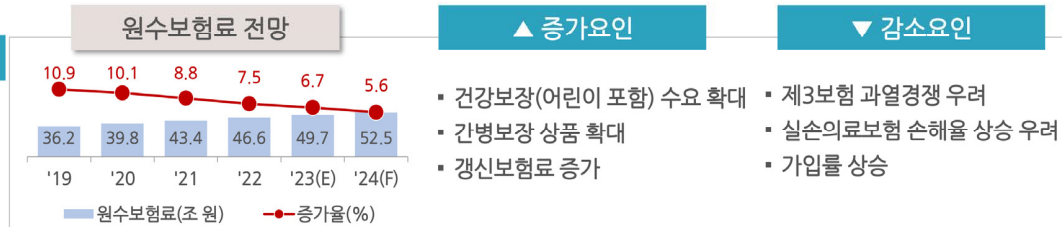
▼ 감소요인

-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 경기둔화 우려와 투자심리 회복 지연
- 타업권 투자형 상품과의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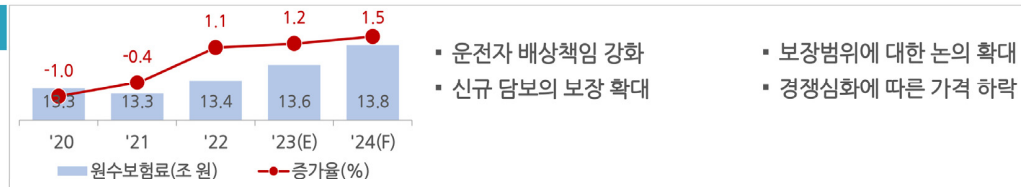
2-1. 손해보험: 장기 보장성보험

- 장기 상해·질병보험은 5.6% 성장, 운전자·재물 등 기타 보장성보험은 1.5% 증가 전망
- 상해·질병보험은 건강 및 간병 수요 확대 등으로 성장세 유지가 전망되나 증가율은 둔화될 것
-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배상책임 관심 확대로 성장, 재물보험과 통합형보험도 완만한 회복 예상

1 상해·질병



2 운전자·재물·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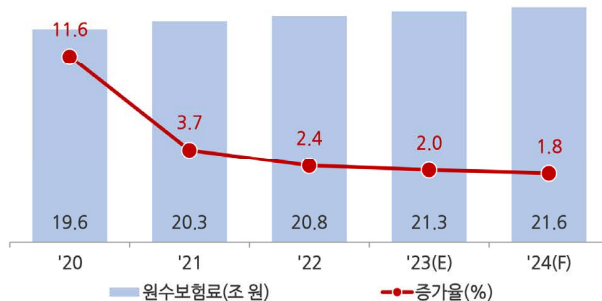


부록. 보험 종목별 보험료 전망

2-2.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조정이 없을 경우 전년과 유사한 성장세(+1.8%)를 보일 것
- 2021년과 2022년 3차례의 자동차보험료 조정으로 제한적인 보험료 증가세를 보임
-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
-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가입 확대, 운행거리 연동 보험 증가 등으로 대당 보험료 확대가 제한적
- 고가차량 증가와 신규 전기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차 및 특약 가입 확대는 보험료 증가요인으로 작용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고가(수입차 포함) 차량 증가
- 신규(전기 자동차 포함) 자동차 출시 증가
- 신차 가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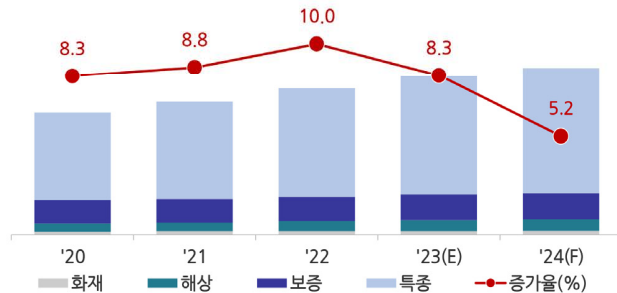
▼ 감소요인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확대
- 운행거리 연동 보험상품 확대

2-3. 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 중심으로 5.2% 성장 전망, 증가세는 이전에 비해 둔화
- 화재보험은 주택화재 보험 수요의 완만한 확대 등으로 2.8% 증가 예상
- 해상보험은 수출입 물동량 확대에도 환율변동 효과 악화로 4.3% 증가 전망
- 보증보험은 신용 관련 보증 수요 확대에도 완전한 경기회복세 전망이 어려워 2.2% 성장에 그칠 것
- 특종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및 신규 담보 확대 추세 지속으로 6.0% 성장 예상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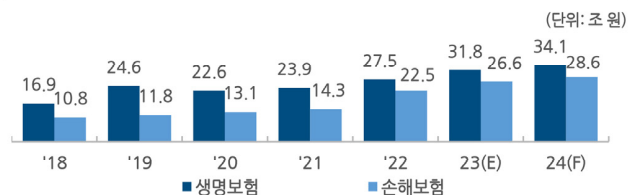
구분	'20	'21	'22	'23(E)	'24(F)
화재	1.6	15.3	0.3	2.2	2.8
해상	17.4	5.6	17.8	8.5	4.3
보증	5.0	0.0	2.6	6.0	2.2
특종	8.7	11.1	11.4	9.0	6.0

부록. 보험 중목별 보험료 전망

3. 보험업권 퇴직연금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7.1%, 손해보험 7.4% 증가 전망
- IRP 시장 확대와 퇴직연금 적립금 유출 방지를 위한 판매촉진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자본부담 확대와 금융업권 간 경쟁심화는 보험산업 퇴직연금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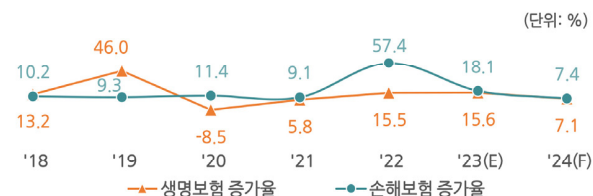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IRP 시장 확대 지속
-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
- 적립금 유출 방지를 위한 경쟁 확대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 감소요인

- 사업자 간 경쟁 심화로 인한 계약 이전
- 건전성 규제에 의한 자본부담 확대

[참고]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21		2022		2023(E)		2024(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전체	118.8	-0.6	132.7	11.6	119.2	-10.1	120.0	0.6
보장성보험	45.8	-0.7	47.9	4.5	49.4	3.2	50.4	2.0
저축성보험	48.4	-3.5	56.5	16.7	37.2	-34.1	34.7	-6.6
일반저축성보험	32.0	-7.8	45.1	40.9	27.6	-38.9	25.1	-8.9
변액저축성보험	16.4	6.2	11.3	-30.9	9.6	-15.1	9.6	-0.2
기타(일반단체)	0.8	1.1	0.8	0.7	0.8	-0.4	0.8	0.3
퇴직연금	23.9	5.8	27.5	15.5	31.8	15.6	34.1	7.1
퇴직연금 제외	95.0	-2.1	105.1	10.7	87.4	-16.9	85.9	-1.7

부록. 보험 종목별 보험료 전망

[참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21		2022		2023(E)		2024(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107.7	5.3	120.1	11.5	128.1	6.7	133.8	4.4
장기손해보험	58.8	5.2	61.8	5.0	64.5	4.4	67.3	4.3
상해·질병	43.4	8.8	46.6	7.5	49.7	6.7	52.5	5.6
저축성	2.2	-20.1	1.8	-20.1	1.2	-32.9	1.0	-17.6
운전자·재물 등	13.3	-0.4	13.4	1.1	13.6	1.2	13.8	1.5
개인연금	2.6	-13.3	2.2	-15.9	1.9	-10.8	1.8	-7.9
자동차보험	20.3	3.7	20.8	2.4	21.3	2.0	21.6	1.8
일반손해보험	11.6	8.8	12.8	10.0	13.8	8.3	14.5	5.2
퇴직연금	14.3	9.1	22.5	57.4	26.6	18.1	28.6	7.4
퇴직연금 제외	93.4	4.7	97.6	4.5	101.5	4.0	105.2	3.6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 저자약력

〈경제 전망〉

윤성훈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 선임연구위원
E-mail : shyun@kiri.or.kr

김가현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 석사 / 연구원
E-mail : gahyun637@kiri.or.kr

〈보험산업 전망〉

조영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youngcho@kiri.or.kr

최원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 수석연구원
E-mail : kinowon@kiri.or.kr

김혜란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hrkim@kiri.or.kr

강윤지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박사 / 연구원
E-mail : yoonji34@kiri.or.kr

〈과제〉

김동겸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dgkim@kiri.or.kr

손재희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경제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jaehee.son@kiri.or.kr

백영화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선임연구위원
E-mail : pyh@kiri.or.kr

정성희 서울대학교 통계학 박사 / 선임연구위원
E-mail : shchung71@kiri.or.kr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발 행 일 2023년 10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 쇄 소 고려씨앤피

ISSN 3022-3628

(정가 10,000원)